

경기도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가족인권연구소

연구책임 | 김다경 (가족인권연구소 대표소장)

공동연구 | 이동수 (가족인권연구소 운영이사(경기지사소장))

김동희 (가족인권연구소 정회원)

정영성 (가족인권연구소 정회원)



요약

□ 연구 목적

경기도 시흥에 경기지소를 둔 비영리단체 가족인권연구소는 「2022년 경기도 청년 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만 19~34세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혼 기피 현상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솔직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비혼”이라는 신종 용어가 뉴스와 미디어, 우리 일상 어디든 흔하게 등장하며, 점차 증가하는 이혼율과 더불어 혼인 감소(기피)가 하나의 국가적 사회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관계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년의 생애 주기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서 비롯된 비혼 유형 연구로, 가족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청년 현실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돕도록 연결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 연구 방법

체계적 연구 설계를 통한 40문항 이내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경기도 생활권역 만 19~34세 청년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인터넷 서베이, CAWI (Computer Aided Web Survey: 자기 기입식 웹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대면 조사의 경우 태블릿PC를 활용한 설문 수집을 수행한다. 또, 일부 응답은 전화 (out-bound) 방식을 병행한다. 수집된 설문 조사는 SPSS를 통해 수치를 검증하고 비혼에 대한 응답자 유형을 탐구하여 청년 비혼의 다양한 유형의 특징을 분석한다. 경기도 현황과 정책적 현황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특성을 교차 분석하여 제시한다. 연구보고서 요약은 최대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개선방안

연구 결과, 경기도 청년 비혼에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적극적 비혼 유형 1은 특히 과거 가정환경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이 집계되었다. 그외에 다른 비혼 유형 2는 현재의 가정환경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을 보였다. 이 두 유형 집단의 과거 또는 현재의 가정환경은 다른 집단보다 다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다수 언론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비혼 선택의 원인으로 경제적 원인을 손꼽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대적 생활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비혼 선언 응답자들이 밝힌 비혼의 결정적 사유에서 가정 유지 부담감이 1순위로 집계된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도 비혼 사유 상위에 등장한다. 거시적 체계에서의 사회 구조와 사회 안전망에 대해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정책적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대다수 국민과 정부가 신생아 출생률에만 민감하며 신혼 부부가 살 수 있는 집, 주택에 관해서만 관심 있다고 체감한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신혼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지금 당장도 아닌 ‘나중에’, 2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액의 남의 집’에 대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자 1%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비교적 저렴한 GH(경기주택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혼 부부 행복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당첨되는 것조차 엄청난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점도 외면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신혼 부부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결혼을 하면 신생아는 의무적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사실상 청년 비혼 선언은 지금 당장 물질적 혜택보다는 그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줄 가정과 국가 간의 ‘상호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잃었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이 방금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듯, 청년 비혼도 오랫동안 쌓인 개인의 사회 저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목 차

Contents

I	서론 / 289	
	1. 가족의 정의	289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1
	3.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	292
	4. 경기도 청년 비혼 연구 계획	293
II	청년 비혼에 관한 고찰 / 294	
	1. 경기도 청년 인구 현황	294
	2. 비혼의 사회적 영향	307
	3. 정책적 현황	315
III	연구 설계 / 322	
	1. 연구 개요	322
	2. 연구 상세	323
	3. 데이터 클리닝	325
IV	결론 / 327	
	1. 주요 설문 결과	327
	2. 비혼 태도 유형	331
	3. 기타	343
	4. 비혼 태도 유형별 특징	346
	참고문헌 / 348	
	부록 (설문지) / 351	

표목차

Contents

〈표 1〉 응답자 특성	326
--------------	-----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 경기도 가구 형태 (가구 수)	296
[그림 2]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	298
[그림 3] 개인회생 절차 개시 공고	306
[그림 4] 국내 지역별 평균 초혼 연령	309
[그림 5] 구글 '비혼' 검색량 증감 추이	311
[그림 6] 전국 1인 가구 분포 현황	312
[그림 7] 경기도 초혼 연령	312
[그림 8] 경기도 1인 가구 인구 분포 현황	312
[그림 9] 2020년 가구 형태에 따른 성인 자살 생각 현황	313
[그림 10]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313
[그림 11] 자살률 증감 추이	314
[그림 12] 경기청년포털 신혼 부부 카테고리	315
[그림 13] 경기청년포털 생활·문화 페이지 중 “결혼” 키워드 검색 결과	316

I

서론

1. 가족의 정의

한국 문화를 집대성하였다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가족(家族)의 정의를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친족원)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2022). 가족은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개인이 만나는 가장 최소한의 집단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함께 사는 혈연이자 동시에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의 역할의 주요 요소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노동력은 주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3차, 4차 산업 시대를 아우르면서 단순한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닌 고부가가치 기술과 접목하게 되었다. 또한, 각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역시 변화되었고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더 많은 출산이 노동력 증대를 통한 생존 목적이었다면, 이제 가족은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의 복합적 결합을 추구하고 보전할 수 있는 경제적 단위로 변화하였다.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적 집단인 가족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꿈꾸며 이따금 개인과 개인의, 혹은 개인과 집단, 더 나아가 집단 간의 여러 요인에서의 가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여 가족 형태 변화는 더욱 가속화하였다. 흔히 세대 갈등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대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이러한 미디어의 강한 파급력은 새로운 가족 단위의 명칭을 창작해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를 지칭하는 ‘나혼자산다’, 싱글족을 포함한 부모나 부부의 지칭은 ‘(고딩)엄빠’, 이혼을 겪은 사람에게는 ‘돌싱’, 한부모 가족에게는 ‘싱글맘’ 등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혼재하는 신조어들이 범람하면서 가족 정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기존의 가족 체계를 새로운 일상의 단어들로 역치(易置)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시각에서 다소 비합리적으로 평가되던 전통 사회의 가족 체계를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동시다발적인 가족의 기능 변화는 아직 사

회 구성원으로서의 출발과 자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인구의 지지 기반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 가족의 단위는 시대가 변할수록 계속 작아지고 있지만, 1인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청년들은 혼인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홀로 지내면서 독거 생활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그러나 ‘나혼자산다’의 가족 단위는 최소한의 의식주 및 가사노동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 미래 불안에 대한 대비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 발달이 물질만능주의와 함께 모든 것을 재화와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지만, 애정과 존경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친밀과 유대관계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필요충분 환경이 결핍되어 스스로 고립되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상대적으로 가족의 화목함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미담’이 되었다. 가족 구성원 중 본인 스스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원치 않고, 혹은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수가 증가했고, 이제는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딩펫(Dinkpet)족’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임신을 원하는 ‘불임’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감행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어떤 가족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아이를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파양’하기도 한다. 선택받지 못한, 혹은 친부모에게 ‘유기’된 아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신청주의 기반의 ‘최저 생계’만 보장받으며 성장한다. 최근에는 ‘다둥이’ 사회보장의 맹점을 악용해 여러 아이를 입양하여 폭력을 일삼으며 학대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극악 범죄도 만연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해결되지 않은 일상의 두려움이 장기 고착화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일 것이다. ‘나 하나’조차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매일 생계의 최전선에서 아무런 지양도 없는 척 최대한의 방어를 하는 것이 현시대의 본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매일같이 들려오는 ‘트라우마’, ‘PTSD’와 같은 심리학 용어들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불안과 고통을 일상처럼 호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에 그 불안함은 더욱 가중된다. 변별력 없이 마냥 흘러가는 정보의 비대칭과 역기능으로 인해 교육과 정보의 학습 관계도 철저히 무시된 채 오로지 ‘태어난 운’에 따라야 할 수도 있다. 누구도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지독히 운이 없는 청년들은 그토록 원했던, 혹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내색할 수 없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은커녕 그들의 뛰어난 잠재력과 가능성은 어떤 인생의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맥없이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혼자’ 사는 1인 가구 수는 700만에 이르렀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역대 최저 혼인율과 출생 인구에 대해 보도하고 있지만 왜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17년부터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의 권리도 노인처럼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고독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심각한 상태이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마저 설상가상으로 버거운 현실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더불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혼인(*조혼인율)은 19만3,000건으로 2015년 30만 건 대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이와 비례하여 출생아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과거 독신주의자로 불리던 2020년대 비혼주의자는 과연 자신의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불가결한 의무가 되어버린 것인지 경기도 청년 연구를 통하여 원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010년경부터 전국적으로 “비혼”이라는 용어가 뉴스와 미디어, 우리 일상 어디든 흔하게 등장하며, 점차 증가하는 이혼율 등 혼인 감소(기피)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경기도 시흥에 경기지소를 둔 비영리단체 가족인권연구소는 「2022년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만 19~34세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혼 기피 현상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솔직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요

소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청년 및 가족 발달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추후 심층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의 결혼에 대한 비중 분석뿐만 아니라 청년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세대와 각 분야 계층이 현 사회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3.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

2021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부부와 미혼 자녀의 가족 구조는 전형적 가족의 틀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전통적 혼인, 혈연 중심이 아닌 동거, 비혼 출산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은 성별에 관계 없이 경제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직장 내에서 또는 가정 내 각 개인에 대한 가치 충돌은 또 다른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MZ세대조차도 1980년대생과 1990년생, 더 나아가 중기·후기로 나뉘는 등 그 간격이 더욱 세분화되어 더 많은 설명이 요구된다. 약 20년간의 시대상도 구체적인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연 청년 비혼의 현상 또한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자발적 선택이나, 아니면 사회의 유기적 개체로서의 성인 남녀의 비혼이 사회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냐에 대한 연관성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혼인 감소 현상이 수도권 과밀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인 일자리 집중, 주거 부족-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생활편의시설이나 ‘직주 근접’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언론과 정부에서 말하는 인구계획 위기가 단연 청년들의 한 순간 선택이 아님을 탐구해야 한다. 전통적 성 역할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젠더 갈등 또한 청년 비혼의 원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이전 세대들에 이어 여전히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

고 있고, 자녀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한 작용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나친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안감에서 오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도 청년들의 ‘비혼 선언’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경기도 청년 비혼 연구 계획

청년 비혼은 그 특정 원인을 파악해볼 독립성이 존재하지만, 경기도 청년 비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조사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청년 정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청년 비혼에 관한 고찰을 통해 경기도 청년 인구 및 혼인 추이를 포함한 주거 형태 및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고용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안감, 사회 안전망에 대한 탐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분 청년 비혼 사유로 “경제적” 요소가 항상 당연시되어왔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자라온 가정환경과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지표를 제시하여 청년 비혼의 사유가 반드시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비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시적 체계에서 해석하여 청년 비혼이 단순히 청년층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밖에 1인 가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비롯한 고의적 자해(자살)는 청년 인구의 가장 큰 국가적 손실임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상세 연구에서는 비혼을 고려하는 청년의 의견 조사와, 그렇다면 왜 비혼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 비혼의 네 가지 유형(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족인권연구소는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40문항 이내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온라인, 전화, 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청년 100명 이상에게 응답을 수집하여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기도를 동/서/남/북부의 네 권역으로 나누고 성·연령별 범위를 3단계로 각 비혼 유형의 특징을 분석한다. 설문 문항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 조사를 실시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검증된 연구 결과는 각 권역별 청년 비혼 현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미래 인구 예측의 근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Ⅱ

청년 비혼에 관한 고찰

1. 경기도 청년 인구 현황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93만 명(2021년)으로 2022년 3월 경기도 인구와 큰 변동이 없었으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19~24세 97만4,587명, 25~29세 95만 8,951명, 30~34세 89만9,899명으로 연령이 상승할수록 인구는 감소하는 우하향 곡선을 보였다. 경기도 내 총 청년 인구는 283만3,000명으로 전국 청년 인구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성비는 110.52%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만1,66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경기도의 혼인 추이

경기도의 혼인 건수는 5만4,658건으로 전국 혼인 건수 19만2,507건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명당 혼인율이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연도 이혼 건수가 2만7,256건으로 전국 이혼 건수 10만1,673건의 26.8%로 나타나 혼인율과 이혼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전국 평균 조이혼율이 2.0p로 경기도 조이혼율 2.0p와 동일하였다. 전국 시·도별 초혼 연령 통계(2021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남성 초혼 연령은 평균 33.3세로 전국 평균 33.2세보다 0.1세 높았으며, 여성은 31.1세로 전국 평균 30.8세보다 0.3세 높았다(기준선 32.04세). 두 성별 간 평균 나이 차이는 2.4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경기도의 경우 2.2세 차이로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 형태

<경기도 점유 형태 및 거주 기간별 가구 수 현황> (통계청)

경기도	점유 형태	계	1년 미만	1~2년	2~3년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 이상
	점유 형태	5,098,431	836,892	729,954	576,734	781,808	866,249	521,796	300,171	218,997	265,830
자가	2,817,807	235,395	241,214	270,326	421,158	560,205	391,855	259,665	195,366	242,623	
전세	942,834	257,155	233,990	136,024	153,827	104,551	34,048	11,250	6,738	5,251	
보증금 있는 월세	1,085,789	287,092	217,629	142,872	169,735	160,976	73,433	17,940	8,696	7,416	
보증금 없는 월세	76,278	23,204	13,700	8,760	10,479	10,067	5,059	2,022	1,351	1,636	
사글세	12,340	3,781	2,066	1,284	1,616	1,739	782	364	218	490	
무상	163,383	30,265	21,355	17,468	24,993	28,711	16,619	8,930	6,628	8,414	

주택 유형	미혼(%)	배우자 있음
단독주택	32.1	42.5
아파트	10.4	74.9
연립·다세대	21.1	51.3
기타	59.9	26.2
주거 형태		
자가	7.1	76.8
전세	26.7	56.2
무상	26.8	43.6
보증금 없는 월세	37.8	24.1
보증금 있는 월세	41.5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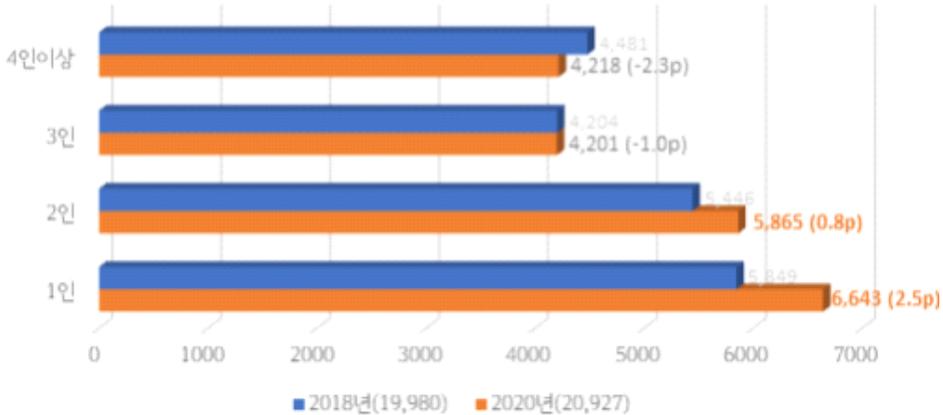
경기 통계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2022)에 따르면 미혼의 “자가” 소유자는 7.1%에 불과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가 소유자가 전체의 76.8%를 차지하였다. 미혼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이었다. 또한, 주택 유형별 미혼의 거주 비중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중 기타가 59.9%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2.1%, 연립·다세대 21.1%, 아파트 10.4%의 순이었다. 미혼일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고시원 또는 단기거주시설 같은 주거취약시설일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³⁾

3) 경기도 시군구별 평균 미혼 인구 비중은 37.3%이며 오산 42.5%, 수원 42.0%, 시흥 41.3%, 안산 41.0%, 평택 39.5%, 성남 39.4%, 고양 39.3%, 남양주 39.3%, 화성 39.3, 하남 39.0%, 군포 38.9%, 의정부 38.8%, 안양 38.8%, 광명 38.8%, 구리 38.5%, 의왕 38.5%, 과천 38.3%, 용인 38.3%, 김포 37.9%, 부천 37.3%로 31개 시 중 20개 시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1인 가구 증가

[그림 1] 경기도 가구 형태 (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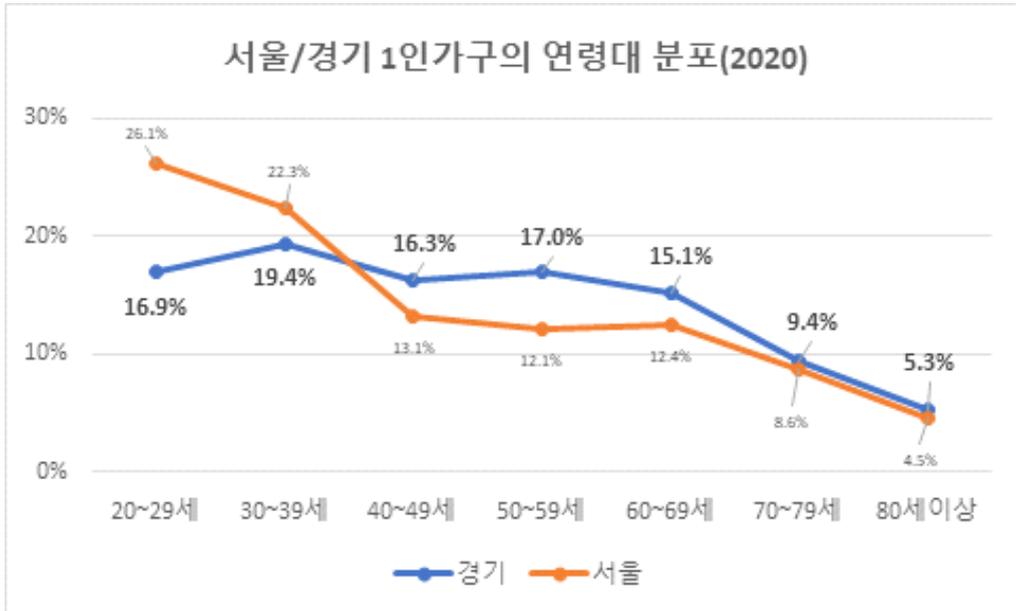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현재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전체 509만 가구 중 140만 가구로 그 숫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나홀로 가구가 21.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 30대의 경우 혼자 사는 이유로 “직장”이 85.2%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연령에서는 “직장”이 52.7%에 그쳤고, “주거” 요인 18.4%, “가족 간 불화” 요인이 13.4%(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로 나타나 경제적 수입원의 장소 및 주거환경과 더불어 가족 간의 관계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절대적인 취업 확률도 경기도가 앞선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 전입하였을 가능성 또한 높다.

4) 1인 가구 연령대

2020년도 전국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경기도가 21.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0.9%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통계의 의미는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30~39세에서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이 10~20년이 27.3%로 가장 높은

것과, 20~29세의 1인 가구가 37.2%인 점을 감안하면 20대 초반의 1인 가구 형성이 30대 후반까지도 이어져 10년 이상 장기간이 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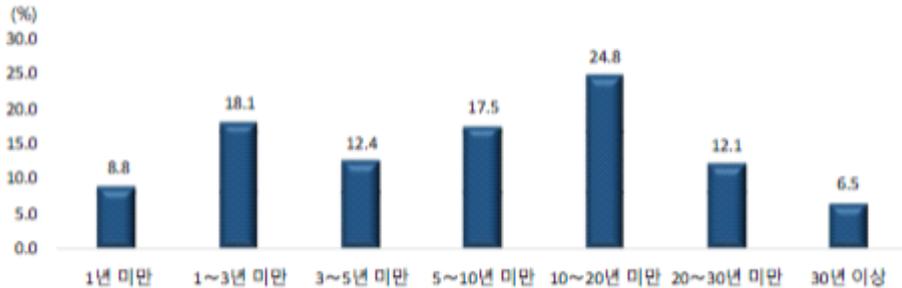


20대의 1인 가구 사유로는 학업과 직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70%), 30대부터는 학업·직장 사유가 58.5%로 감소하며 “혼자 살고 싶어서”가 20대 대비 6%가량 증가(19.9% ⇒ 25.8%)하는 것으로 보아 1인 가구의 ‘자발적 선택’을 유추할 수 있다.

5) 1인 가구 생활의 장기화

동향 조사처럼 각 연령별 1인 가구 선택 사유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인구 이동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0대의 경우 1인 가구 거주기간 10~20년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30대에서 미혼 청년들이 실제로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지, 증가하는 이혼율이 반영되어 다시 1인 가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



(출처: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또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이 현재 부모 혹은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 희망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독신주의자’에서 현재는 ‘비혼주의자’로 시대적 용어가 변화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으므로, 현재 원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향후 비혼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6) 왜 혼자 살까?

이미 많은 연구에서 혼자 사는 사유로 학교나 직장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통근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중 ‘통행 목적별 스트레스’ 문항에서 도로 혼잡 35.3%, 차내 혼잡 24.3%로 승용차 및 대중교통 두 수단 모두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응답한 경기도민 2만2,000명 중 교통환경 불만족을 제시한 19%(4,000명) 역시 직장 통근을 사유로 1인 가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주거비 경감을 위해 서울의 직장을 다니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고용 불안정성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증가함으로써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확률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가족이 모두 이사하는 방법보다 주말부부나 ‘기러기’ 아빠/엄마 또는 스스로 미혼인 상태로 독립 자녀를 선택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가구 분리를 제외하고 현재 가구 상황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스스로 경제력을 확보한 후 독립생활을 선택하였을 수도 있다.

7) 고용 불안감 지속

전국 고용 현황에서 근로환경의 열악함(14.9%), 기대 수입보다 낮음(12.9%)과 같은 요인들이 구직의 어려움 사유로 손꼽혔다. 경기도 청년층의 연령별 중위값인 27세로 가정하였을 때,⁴⁾ 성·연령별 고용률은 57.4%에 불과해 30대(7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체 도내 전체 사업체 수가 291만 건(2020년)으로 집계된 바, 이는 도내 청년 인구 283만 명이 모두 경기도 내에 취업한다고 가정한다면 소규모 기업일 확률 또한 매우 높다. 반드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이 근무환경이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대 취업 포털인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졸 예정자 605명 중 정규직 취업자는 11.6%뿐이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72.9%에 달해 대기업 정규직 채용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을지 모른다.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자녀)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아닌 경우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 소득 250만 원 소득자인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정책사업 목록에서 지금 당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실직 후 창업'밖에 없다. 만약 이 청년이 실제로 실업(직)을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마저도 훈련 유형에 따라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년이 어떠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자유로운 연애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도움을 받던 청년이 30대에 접어들어 취업에 성공하여도 그동안 받은 부모 도움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의무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제적

4) 남성의 취업률은 75.2%인 데 반해 여성은 57.7%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게 되어도 지금 당장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하
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8) 사회 안전망

경기도에서는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조례 개정(2020.07)으로 1
인 가구 대상으로 1인 가구 지원 계획 - 외로움·고립 극복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취약계층 1인 가구 중심에서 보편적 1인 가구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사업에는 1인 가구 재무 경제 교육 및 재무 상담, 건강 돌봄 프
로그램, 마을 공동 부업, 행복 나눔터 운영 및 혼(자)라이프 꿀팁 교육, 콜벗 서비스 등
건강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2023~2027) 기본 계획 수립 연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외에 수원시에서
는 체감형 안전도시 정책으로 싱글 우먼(여성) 하우스 케어, 성남시에서는 생활 지원
서비스로 무거운 생활 짐 옮겨주기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 추진 전
략에 대해 ①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② 외로움·고립 극복 지원 ③ 혼밥
개선 소셜 다이닝 ④ 홀로서기 지원 ⑤ 건강 지원 ⑥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⑦ 웰다
잉(Well-dying) 지원을 제시하였다.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
호하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정책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상
호 돌봄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40만의 1인 가구 전체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30대 가구 수가 50만 가구를 웃돌며 전체 비중에서 36%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안과는 상호관계가 없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의 혜택 수혜 가능
성도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의 한 해 예산은 3조
6,363억4,743만4,000원(12.13%)인 것에 반해 청년복지정책과는 2,570억3,794만5,000
원(0.86%)이며 1인 가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다문화과는 1,337억3,676만6,000
원(0.45%), 청년이 해당할 수 있는 사업 부서 예산은 3,907억7,471만1,000원으로 노인
복지과 예산의 1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복지 수혜가 큰 것이 당연한 사회적 통념으
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독거노인의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경기도 내 1인 가구의 비중이 20~30대가 36.3%로 70대 이상 노령 인구 14.7%에 비해 20%p 높다. 하지만 예산안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청년으로서 또는 1인 가구로서 사회취약계층으로 명백히 인정받지 않는 한 어떠한 도 차원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는 다양한 가구의 변화 양상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9) 미디어를 통한 가족 체계 분열의 확산

소비성 미디어의 절대적 한계는 대중이 원하는 흐름대로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디어저작권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공유는 현시대 법적 절차의 더딘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마녀사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백히 나누고, 네티즌 재판소는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파급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 온라인의 순기능도 다양하지만, 최근 미디어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은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중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사실 여부와 인과관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된 왜곡 사실로 인해 타인을 불신하게 되며, 그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폐해는 무방비 상태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가족 콘텐츠에 대한 개인의 수용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낱말이 증가하는 가족 갈등은 대중의 소비성 1위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다수에게 드러나게 된다. 순간의 장면이 마치 영원한 ‘사회적 낙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낙인은 보호자(보통 부모)의 동의로 출연한 어린이에게도 적용되며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문제 행동들이 영구적인 디지털 자료로 보존되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쉽사리 공개하기 어려운 가족의 해체, 별거, 이혼 또는 재혼 등의 소재가 되어 등장하는데, 가족 갈등이 정당한 방식의 집단 치료 상담이나 대면 상담과 같은, 오랜 기간 충분히 검증된 의학적 방식이 아닌 대리 경험을 통해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며, 본인의 중요한 가족관계도 쉽게 결정 내어버리는 일종의 판단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각 개인의 가장 중요한 일대

사(一大事)가 화면에 등장하여 타인의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수용하게 되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 참고 수준 이상의 상상이 투영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미디어에 비친 타인의 가족 갈등이 나의 가족 갈등과 겹쳐져 받아들여진다면 가족 자체 갈등에 대한 피로도가 더욱 높아지기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의지조차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의 가족관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가족 갈등은 그 즉시 해결방안을 찾고 그에 알맞은 행동 요령을 수시로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미디어의 역할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만큼 수많은 가족들의 일상 속 사소한 갈등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여과 없이 익명의 사용자(시청자) 입맛에 따라 방영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 분열 트렌드(trend)”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10) 경제적 환경과 교육의 연관성

앞서 언급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도 험난한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경기도 거주자 중 수급자는 28만 가구를 상회하여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보고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 학생이 많을수록 학교 성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 유지 어려움이 학업 부진과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상위권 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드시 가계 수준이 학업성취도와 정비례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성인기·청년기를 포함한 중장년 전 세대에 걸쳐 스트레스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므로 완전한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들이 진학 및 취업을 통해 경기도로 몰리면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 예산 125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2022년 경기 청년 예산 5,952억 원 중 2.1%에 불과하지만, 경기도 청년 참여·권리 분야 한 해 전체 예산이 45억 원(0.76%)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예산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에서 성장한 경우처럼 완전히 열악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 100% 초과 청년, 즉 소위 최저임금 월 199만4,000원에서 월 1만 원이라도 더 받는 청년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교통비를 지원받거나 청년사관학교, 영농, 어촌 정착, 전통시장 등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노령 인구의 급증으로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로써 노인 일자리는 더 급격한 속도로 급여 수준이 하락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마치 ‘가불’처럼 사용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서 독립한 청년 가구들은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월세와 생활비조차 충당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한데, 중위소득 100%가 넘어가면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LH 또는 경기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청년 주택 지원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만기 지급금 580만 원에 희망을 걸고 강제 저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는 결론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자립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자발적 발전만이 청년들의 현 생존 과제임을 시사한다.

11) 예산의 한계

이러한 모든 지원 정책은 연간 예산안에서 출발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청년 비혼에 관한 고찰 중 청년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총 사업비 5,952억 원을 투입하여 46개 청년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복지·문화 사업비가 2,9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자리 분야의 한 해 예산이 1,492억 원인 것에 비해 약 2배에 가깝다. 그러나 복지 분야의 사업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으로 1,534억 원이 소요되지만 이마저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경기도 청년 인구가 절반 이상이다.

12) 보편적 정책의 필요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년 인구청년 인구에서 만 25세 이상이 청년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

소 형평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청년정책 복지·문화 분야에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199만5,000원 이상 수입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청년노동자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금융 지원 제도는 모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 가능한 정책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제도만 유일하다. 이밖에도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에게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1,500만 원 및 월 30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정책은 경기도 내 연간 대상자가 400여 명 정도이며, 사실상 기초복지에 해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 청년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13) 공식적 가난

올해 중앙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복지로’를 통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최저임금 이상 받는 직장이라도 다니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첨을 통해서가 아닌 모두에게 지급하는 월세 지원 형식이 있어 관심을 가졌지만 직장인에게 턱없이 높은 지원 요건이기에 바로 포기했다”(영등포구 고시원 거주 28세 A씨)(쿠키뉴스, 2022.08.20. 보도)는 의견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 내 소방시설을 갖춘 고시원은 3,000여 개도 채 되지 않는데, 흔히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거주 형태)라고 불리는 열악한 고시원에 거주하지만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호한 경계선의 오류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는 경제학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본가의 불로소득 자체가 경제적 안정성을 촉진하거나 이러한 공급책을 통해 시장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하지만, 지금 당장 월세 해결 어려움에 처한 주택 빈곤 현상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청년의 복합적인 다중적 생활고는 한편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14) 불로소득과 채무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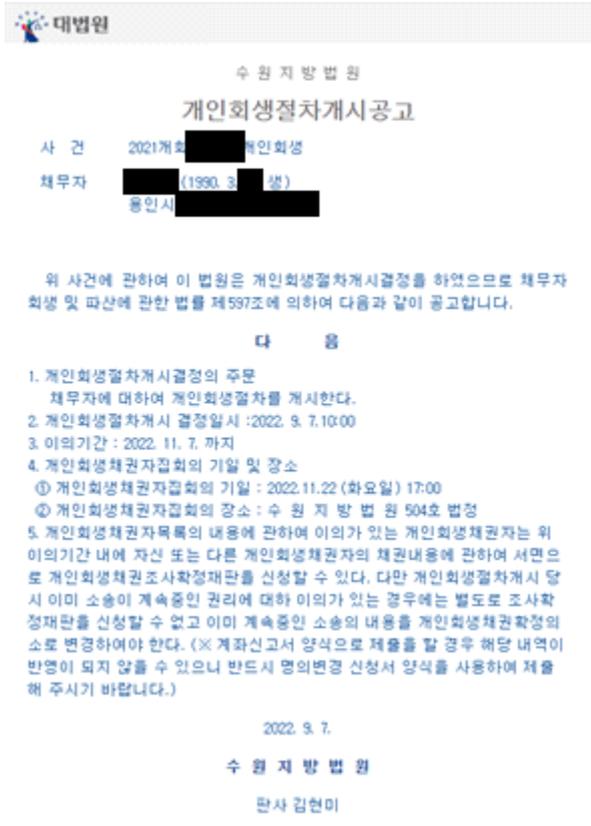
39.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법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합계	723,148	571,725	626,364	628,438	645,440	719,154	819,662	912,539	938,236	1,110,037
서울지방법원	채권	49,782	40,573	41,990	36,959	36,181	37,525	41,147	43,409	41,517	45,150	41,423
	그밖의 재산권	26,986	21,328	22,284	21,520	21,292	22,943	25,534	27,545	26,845	30,389	24,667
인천지방법원	채권	32,013	25,023	26,759	25,910	25,362	27,757	30,722	32,744	32,420	36,004	29,471
	그밖의 재산권	29,335	23,122	24,186	27,867	28,736	32,075	35,736	38,826	38,120	41,969	31,997
대전지방법원	채권	23,400	17,500	19,050	18,347	18,281	19,640	21,114	22,660	20,892	23,126	20,401
	그밖의 재산권	28,006	22,889	25,272	26,117	25,786	29,820	34,319	37,529	38,578	46,058	31,437
충청지방법원	채권	19,378	16,607	17,547	17,875	18,101	21,239	24,244	26,299	26,267	29,898	21,746
	그밖의 재산권	47,384	39,496	42,819	43,992	43,887	51,059	58,563	63,828	64,845	75,956	53,183
경상지방법원	채권	43,070	36,209	41,281	40,485	41,950	46,569	54,157	59,048	62,886	73,751	49,941
	그밖의 재산권	17,063	14,401	15,640	15,695	15,881	17,393	19,584	22,167	22,052	26,259	18,614
전라지방법원	채권	60,133	50,610	56,921	56,180	57,831	63,962	73,741	81,215	84,938	100,010	68,554
	그밖의 재산권	34,004	28,211	30,425	30,545	30,903	34,763	40,901	47,559	48,992	58,212	38,452
호남지방법원	채권	19,968	16,654	17,478	17,170	17,171	19,206	21,658	24,503	25,579	28,995	20,838
	그밖의 재산권	5,477	4,593	5,040	5,041	5,099	5,882	6,772	7,720	8,283	9,672	6,358
제주지방법원	채권	9,214	7,856	8,442	8,564	8,900	10,100	12,074	14,089	15,709	19,296	11,424
	그밖의 재산권	24,115	19,523	21,354	19,650	20,193	23,316	26,567	29,022	30,851	35,652	25,024
서울지방법원	채권	13,511	10,897	11,736	10,709	10,408	11,494	12,835	14,281	14,152	16,319	12,634
	그밖의 재산권	106,289	87,734	94,475	91,679	92,674	104,761	120,807	137,174	143,566	168,146	114,731

최근 청년들의 무분별한 금융/부동산 투자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2030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 일부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 약 32만8,000건 가운데 36.3%인 11만8,000건을 20대와 30대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22.06.21. 보도). 반드시 그들이 투자 혹은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주거 목적을 제외한 자산의 합법적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은 금융 담보 혹은 신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청년세대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논쟁이었다. 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금융 수단으로 이용되며 마치 화폐처럼 사용되었다. 암호화폐는 정식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중대 사유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이다. 화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가치의 등락이 굉장히 높아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암묵적인 흐름으로 거대한 자본시장이 형성되었다. 청년을 포함하여 암호화폐의 급등하는 시장 가치에 몰두하는 사람들과,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다. 그 중 청년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 행위와 가치 급락으로 ‘빛투’ 고지서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것도 현실이다. 반드시 투기성 투자가 과도한 채무관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의 『2021 사법 연감』에 나타난 파산·개인회생 접수 추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을 추론해볼 수 있다. 전국 개

[그림 3] 개인회생 절차 개시 공고

(출처: 수원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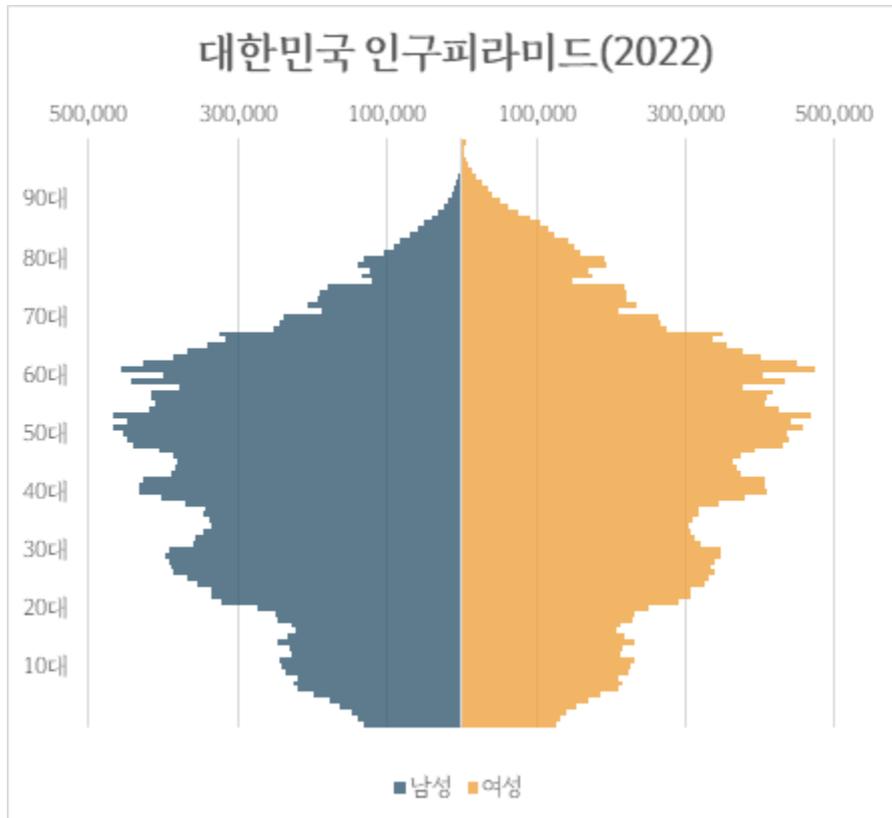
인 파산 접수 건은 2017~18년 4만 5,000건 이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5만 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서 집계한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 누년 비교표’를 통해서도 심각한 채무의 고통을 추측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며 양쪽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된다. 통상 이러한 법원 강제 집행 제도를 통해 채무 회수 집행권을 실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공고 게시판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경기도 거주 만 19~34세 청년층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법원 결정문(공고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오늘날 청년들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비혼의 사회적 영향

1) 대한민국 인구 통계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혼 부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 자녀 수는 부부 한 커플 당 0.68명(초혼 기준, 재혼 1.35명)으로 2019년도 0.71명에서 0.03명 더 감소하였다. 이는 20여 년 전부터 예견된 인구 절벽의 현실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구는 국내총생산(GDP) 산출의 가장 기본 단위로 노동력으로 환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노동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



신혼 부부 수는 전년 대비 -6.1% 하락함으로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사회 통념적으로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구 형태 수가 감소함으로써 출생 인구도 그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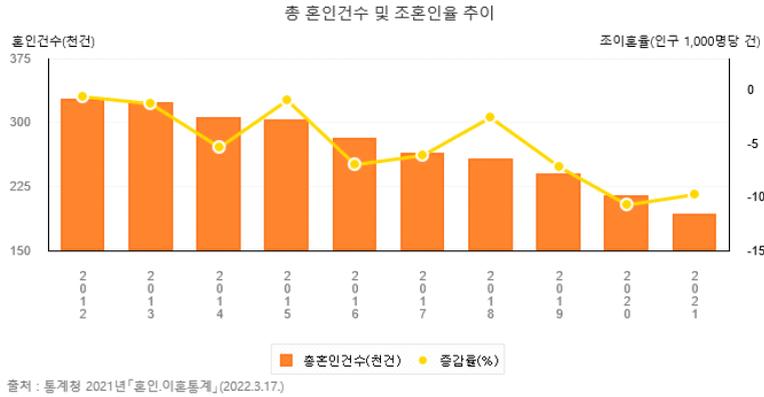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국민과 언론은 곧 시작될,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된 ‘인구 절벽 현상’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반영된 탓인지 혼외 출산율은 OECD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한 부부들조차 ‘딩크족’이라는 신종 용어가 생길 만큼 정부에서 준비한 다양한 보육·육아 정책조차 외면하듯 신생아 출생률은 인구 대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의 확장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인식되어왔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동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비혼율 증가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⁵⁾은 192만3,000건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혼인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연간 혼인 건수가 30만 건이 붕괴된 지 5년 만에 20만 건 선까지 붕괴되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 조혼인율: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3) 초혼 평균 연령 상승

[그림 4] 국내 지역별 평균 초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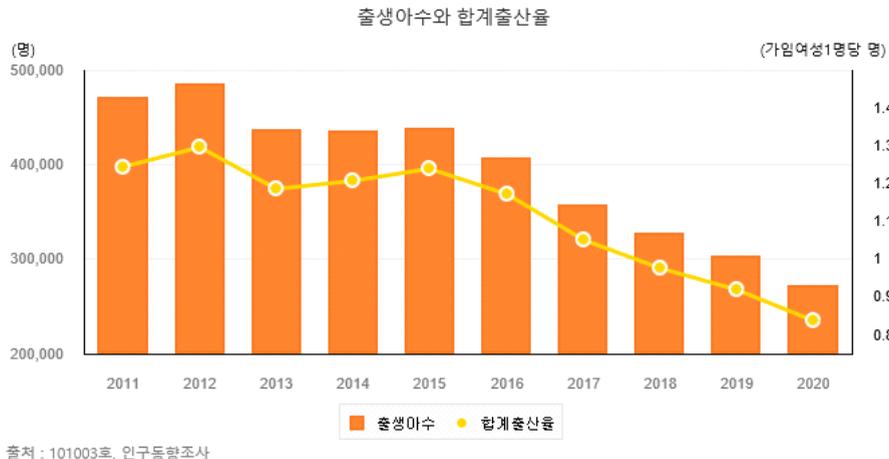


2021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2001년 남성 29.6세, 여성 26.8세 대비 평균 4세 상승되었다. 이러한 초혼 연령 증가는 혼인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경기도의 조혼인 건수는 연간 5만4,00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혼인 건수를 기록하였지만, 지역 인구 대비 조혼인율은 4.1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4.5건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여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단언할 수 없다.) 만약 청년들의 자발적 비혼이라면 어떠한 요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여 혼인에 관련된 추이

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혼인 감소, 이혼 증가” 추이는 다가올 미래에는 이혼 건수가 혼인 건수보다 앞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생아 출생률 감소

출생·사망 통계(잠정)(통계청, 2022)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00년 64만 명에 비해 2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절벽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반면, 초혼 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다. 인구 자연 증가분⁶⁾은 -5만7,300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가 75.7% 더 커졌다. 혼인신고라는 법률제도 외의 혼인 형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38쪽)에서는 출산률이 혼인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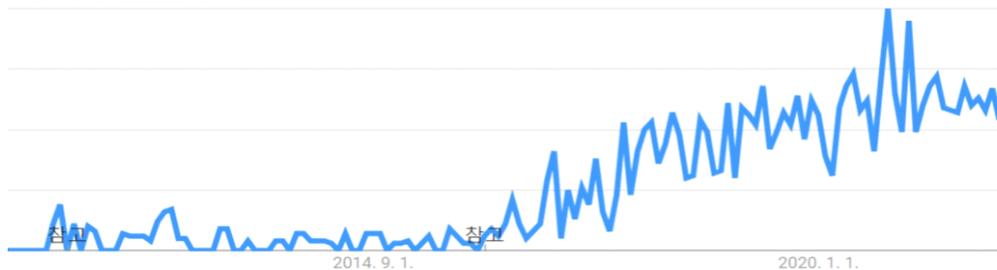


6) 출생에서 사망을 제한 수치

5) 독거노인 vs 독거청년

1990년대 후반, IMF와 같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며 현대판 고려장의 등장과 독거노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나 혼자 산다’가 노인뿐만 아닌 청년으로 세대 이동을 하였고, ‘비혼주의’, ‘골드미스’는 마치 인생의 선택지처럼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림 5] 구글 ‘비혼’ 검색량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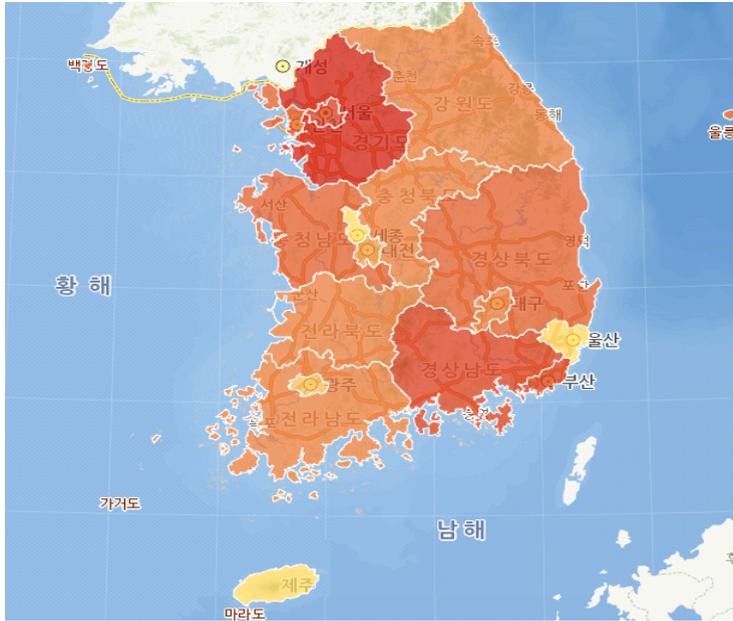


최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비혼이라는 키워드 검색은 특정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검색되기 시작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 연간 혼인 건수」는 전국을 통틀어 20만 건이 채 되지 않는, 20년 전과 달리 절반도 되지 않는 매우 저조한 혼인율을 기록하였다. 3년 전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는 혼인 기피 경향의 영향도 있겠으나 ‘신혼 부부 전세임대’ 등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마친 신혼 부부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혼인장려정책’을 고려해본다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비춰볼 수는 없다.

6) 1인 가구의 수도권(서울/경기) 및 광역시 집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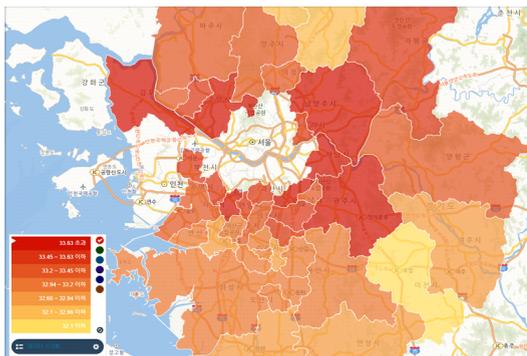
[그림 6] 전국 1인 가구 분포 현황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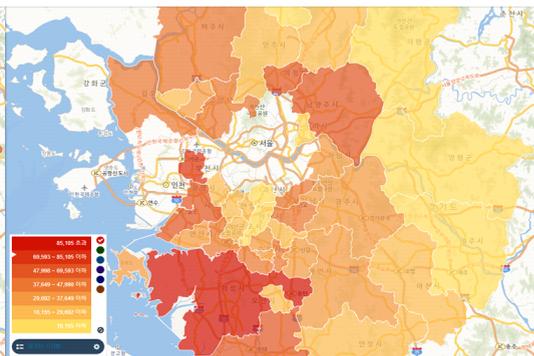
최근 1인 가구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기점으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집중화와 더불어 경기도의 초혼 연령도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초혼 연령의 상승과 1인 가구 분포 현황 간의 연관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7] 경기도 초혼 연령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그림 8] 경기도 1인 가구 인구 분포 현황



7) 고의적 자해 ‘자살’

[그림 9] 2020년 가구 형태에 따른 성인 자살 생각 현황



(출처: 2022 자살예방백서)

10~3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신체적 질병이나 암도 아닌 고의적 자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매년 자살 심리 부검을 통해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체 심리 부검 대상자 중 148명 (18.5%)이 1인 가구로, 34세 이하 청년이 43.9%인 65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더욱더 심각해지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고립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에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노인 고독사만이 고립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림 10]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출처: 보건복지부, 2020)

	0세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1위	호흡기계 질환(특정 연령대) 116.7 (48.5%)	악성신생물 1.6 (18.0%)	고의적 자해(자살) 6.5 (41.1%)	고의적 자해(자살) 21.7 (54.4%)	고의적 자해(자살) 27.1 (39.4%)
2위	선천기형 병형 및 염색체 이상 41.1 (17.1%)	운수사고 0.7 (8.0%)	악성신생물 2.2 (14.0%)	악성신생물 4.1 (10.2%)	악성신생물 13.2 (19.1%)
3위	영아 돌연사 증후군 21.4 (8.9%)	가해(타살) 0.6 (7.3%)	운수사고 2.0 (12.9%)	운수사고 3.8 (9.4%)	심장 질환 4.1 (6.0%)
4위	가해(타살) 6.1 (2.5%)	추락 0.6 (6.4%)	심장 질환 0.5 (3.4%)	심장 질환 1.5 (3.8%)	간 질환 3.4 (4.9%)
5위	패혈증 1.8 (0.7%)	선천기형 병형 및 염색체 이상 0.5 (6.1%)	익사 사고 0.3 (2.1%)	뇌혈관 질환 0.5 (1.3%)	운수사고 3.2 (4.6%)

* 연령별 사망원인 구성비 = (해당 연령의 사망원인별 사망자

[그림 11] 자살률 증감 추이



(출처: 통계청, 2022)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감염증 여파 이전의 <2019 세계행복보고서(SDSN: UN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조사된 한국인의 행복 조건 1순위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31.0%)이었다. 오히려 건강은 그다음 순위로 소득분위 하위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 응답자에서 행복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각종 매체와 언론에서 다루는 1인 가구들의 일상과는 다르게 청년 네트워크 중심에는 가족, 여행, 돈, 건강, 자녀, 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자살 심리 부검에서 조사된 극단적 선택 사유에는 연령을 불문하고 가족관계 원인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가 59.8%, 그리고 실업이나 동료 관계에 관련한 직업 문제가 59.2%로 그 뒤를 이어,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현실적 괴리감에서 오는 파생적 영향을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적 가족 중시의 문화에서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시대상의 변화에서 오는 딜레마로 추측될 수 있다.

3. 정책적 현황

1) 결혼과 청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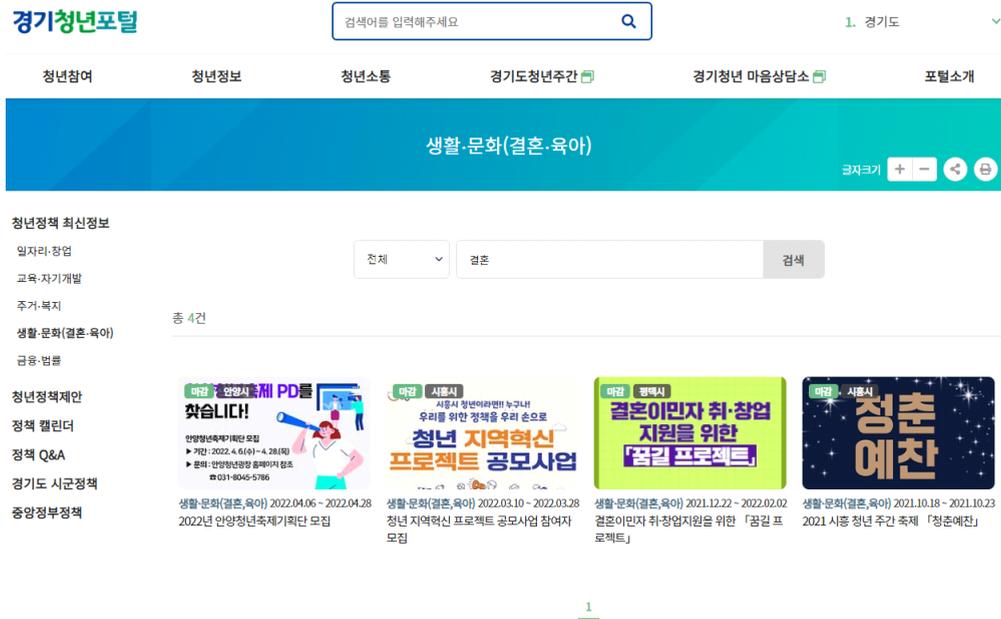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청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중앙부처에서 62개, 지자체에서 731개, 민간에서 93개의 청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내용을 열면 사실상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 아니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복지사각지대 사건·사고로 인한 ‘신청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복지로’는 사이트 개편을 단행하였지만, 일반 청년들에게는 결혼하여 임신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청년 포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청년포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 정보의 생활·문화(결혼·육아) 탭에서는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결혼과 다소 무관한 내용이 많으며,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네 가지 캠페인만 나타나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마저도 지역 청년축제나 지역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 ‘결혼’과 직결된 내용은 이미 마감된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사업이었다. 결혼시장(웨딩사업)의 규모가 연간 26조 원으로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여 공(公)에서 개입할 수 없는 점도 많이 있지만,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에서 각 시·도 청년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저렴하면서도 외부 손님이 초대 가능한 문화재를 활용한 결혼식장 대관

[그림 12] 경기청년포털 신혼 부부 카테고리



정보나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는 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캠페인들도 홍보해본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그림 13] 경기청년포털 생활·문화 페이지 중 “결혼” 키워드 검색 결과



2) 성비 불균형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비롯된 성비 불균형은 혼자 사는 남성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측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만 33~34세인 1988년생은 출생 인구가 63만 명이었으나 출생 성비는 113.2p로 여아 1명당 남아가 1.3명으로 남아 구성비가 동년 출생 인구에서 53.1%를 차지한다. 법률적 혼인이 가능한 1988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가정하였을 때, 남성 3만9,000명은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2002년까지도 110.0p를 선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생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전국 평균이 116.5p였는데, 다행히 경기도는 111.3p로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전년도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2021년에도 성비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 대비 6~7년 짧은 것을 근거로 여초

15. 성별 출생아 수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단위 : 명, %)

구 분	총출생아	남녀아 증감률 및 구성비					출생성비 (여아=100.0)
		증감률	여 아	구성비	남 아	구성비	
1988	633,092	1.5	296,889	46.9	336,203	53.1	113.2
1989	639,431	1.0	301,956	47.2	337,475	52.8	111.8
1990	649,738	1.6	300,121	46.2	349,617	53.8	116.5
1991	709,275	9.2	333,999	47.1	375,276	52.9	112.4
1992	730,678	3.0	342,105	46.8	388,573	53.2	113.6
1993	715,826	-2.0	332,461	46.4	383,365	53.6	115.3
1994	721,185	0.7	335,105	46.5	386,080	53.5	115.2
1995	715,020	-0.9	335,416	46.9	379,604	53.1	113.2
1996	691,226	-3.3	326,793	47.3	364,433	52.7	111.5
1997	668,344	-3.3	320,853	48.0	347,491	52.0	108.3
1998	634,790	-5.0	301,987	47.6	332,803	52.4	110.2
1999	614,233	-3.2	293,039	47.7	321,194	52.3	109.6
2000	634,501	3.3	301,854	47.6	332,647	52.4	110.2

(女超) 현상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는 노령 인구에서 가능한 해석으로, 애석하게도 고 의적 자해가 사망 원인으로 가장 높은 청년층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2021년도까지 양평군과 남양주시에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조례를 운영하 였지만, 올해 1월 양평군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현재는 남양주시 한 곳만 운영하고 있 다. 그러나 성비 불균형에서 비롯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은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매매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지역 조례는 2022년 9월 기준 경기도 한 곳(남양주시), 인천광역시 두 곳(강화군, 옹진군), 강원도 여덟 곳(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정선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충청 북도 세 곳(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 네 곳(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전라남도 세 곳(구례군, 나주시, 여수시)으로 총 27개의 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조례 분포를 기준으로 타향인의 유입이 적은 도서·산간 지역일수록 조례로 지 원사업을 운영할 만큼 결혼도 험지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 남양주시는 지난 6월, 2015년 제정한 해당 조례에 대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고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이민자와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들며 어렵사리 이룬 가정이 언어 소통 문제부터 비롯하여 대화 기술 부재,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해체되는 데(박재규, 2011)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왔던 점도 국제결혼의 부정적 시각의 주 요인으로 짚어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인해 해외 입출국에도 제약을 받으면서 실제로 2020년 국제결혼 총 건수는 1만5,341건으로 2019년 2만3,643건 대비 큰 폭(35.1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역시 1만3,102건으로 연이어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촌 총각’이 결혼할 확률보다 ‘도시 총각’의 결혼 수요가 더 높다는 것이 정책 축소의 현주소일 것이다.

4) 신혼 부부 전세대출 이자,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969호, 2018.11.13. 제정]에 따르면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다. 일부 타 부처에서 관할하며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	#	제도명	담당 부처
임신·출산	1	첫만남 이용권	출산정책과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3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출산정책과
	4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출산정책과
	5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기초생활보장과
	6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고용	7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여성고용정책과
주거	9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주거복지지원과

일부 사업은 바우처로 지급된다.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액을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명	시행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수준	본인 부담금 (월/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08.1.2.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 확인	임신 1회당 200만 원 (일 한도 없음)	면제 (월 지원 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아이 돌봄 지원	'17.1.	· 시간제: 3개월~만 12세 아동 · 종일제: 만 3~36개월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 유형별 상이	소득 유형별 상이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15'10.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미만)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 기저귀: 월 6만 4,000원 · 조제 분유: 월 8만6,000원	면제 (월 지원 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경기도 신혼 부부 주거지원사업 목록>

연번	시명	사업명	연간 예산		혼인 기간	주택 소유	금액 제한	면적 제한	기준중위 소득	지원 내용
			'21	'22						
1	수원시	청년·신혼 희망 터치(Touch) 보증금 이자 지원	-	100	7년 이내		-			대출이자 1% (상한 100만 원까지 지원)
2	용인시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0	150	7년 이내	무주택	3억 원 이하	85㎡ 이하	180% 이하	대출이자 1% (상한 100만 원까지 지원)
3	안산시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400	400	5년 이내	무주택	2억 원 이하	85㎡ 이하	180% 이하	1.25~1.5% 대출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5년)
4	안양시	신혼 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	550		전원 무주택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대출이자 1% (상한 1년간 최대 100만 원)
5	시흥시	신혼 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300	250	7년 이내	무주택	2억5천만 원	-	180% 이하	대출이자 1.5% (상한 최대 70만 원)
6	광주시	신혼 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50	50	7년 이내	무주택	-	-	180% 이하	대출이자 1~1.5% (상한 연 1회 100만 원까지)

연번	시명	사업명	연간 예산		혼인 기간	주택 소유	금액 제한	면적 제한	기준중위 소득	지원 내용
			'21	'22						
7	군포시	신혼 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70	270	-	무주택	-	-	-	2%/300만 원
8	구리시	무주택 신혼 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30	30	-	무주택	-	-	180% 이하	1%/100만 원
9	여주시	청년 신혼 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4	203	10년 이내	-	3억 원 이하	85㎡ 이하	연 8천만 원 이하	18~39세 (2% 이자 지원, 최대 200만 원)
10	과천시	신혼 부부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120	180	7년 이내	-	5억 원 이하	-	연 9,700만 원 이하	1% 이자 지원
11	가평군	신혼 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0	100	7년 이내	무주택/1주택	3억 원 이하	-	200% 이하	실 납부 금액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최소 1인, 만 49세 이하)

<신혼 부부 사회주택 지원사업 목록>

연번	시명	사업명	연간 예산		혼인 기간	주택 소유	지원 내용
			'21	'22			
1	고양시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47	12	-	무주택	사회주택 공급
2	부천시	ZERO주택 공급				"	공공주택 공급
3	시흥시	알콩달콩 사회주택	11.4	49.9	7년 이내	"	사회주택 공급/최장 10년 거주
4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124	137		"	임대주택 공급

<경기도 임신·출산 지원제도 목록> (지역명: 가나다 순)

분류	#	지역명	제도명
출산장려금 (10)	1	고양시	출산지원금
	2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3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4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5	김포시	임신축하금
	6	김포시	출산축하금 지원
	7	부천시	둘째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8	안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9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10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분류	#	지역명	제도명
출산축하 선물 (8)	11	과천시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
	12	부천시	출산축하선물 지원
	13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14	오산시	보완적 출산장려 지원(출산축하용품)
	15	용인시	출산용품 지원
	16	파주시	출산축하 지원
	17	포천시	포천 청년 예비부부 건강한 출산 지원
	18	화성시	출생축하선물 지원
산전검사 (3)	19	광명시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사업
	20	광명시	산전 검사 쿠폰 지원사업
	21	과천시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
난임 (2)	22	광명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23	광명시	아이 소망 지원사업 (난임 치료)
교통 (1)	24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관리 (14)	25	기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26	고양시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27	구리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 지원)
	28	남양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29	부천시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0	수원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 확대
	31	시흥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 지원)
	32	안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3	여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4	오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35	용인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	이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7	평택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8	포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 (9)	39	고양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40	과천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41	광명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등)
	42	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43	수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44	안성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45	오산시	장애인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46	오산시	장애인 재활 서비스 강화 출산지원금
	47	의정부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시 추가 지원)
기타 (1)	48	파주시	모자보건사업

III

연구 설계

1. 연구 개요

본 페이지에서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경기도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설계 과정을 기술하였다. 비혼 담론이 실제 경기도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다가왔는지를 확인하고, 표본 내에서 지자체별 인구 수 혹은 시·군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어떠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는 추후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혼인 장려 정책과 실제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예측·설계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경기도 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1) 요약

조사 목적	경기도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와 결혼 가치관 조사	
조사 대상	경기도 생활권(거주, 재학, 재직 등)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조사 목적 설정 → 조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및 해석 → 보고서 작성		
조사 기간	조사 주기	1회
	설문 기간	2022. 08. 26. ~ 09. 05. (10일)
조사 항목	인적 사항, 결혼에 관련된 36개 항목	
설문 형태	개방형	설문 조사 응답지 중 자유 서술
	폐쇄형	다지선다형 객관식 형태 온라인 서베이 및 전화 조사
표본 프레임	경기도 거주 만 19~34세의 청년	
표본 추출 방법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표본 크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권역 기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 동(성남, 여주), 서(시흥, 안산, 부천, 안양), 남(수원, 화성, 용인, 오산), 북(고양, 동두천, 포천) 생활권역 만 19~34세 미혼 남녀 100명 이상	
표본 추출	총 100명 이상 (①연령별, ②성별, ③생활권역 등)	

주요 용어

- 비혼: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성 교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이성 교제를 하고 있지만 향후 1년 이내에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
 - 결혼: 법률적 혼인을 한 상태로 1년 이상 사실혼을 포함한다.
-
- 신뢰도와 타당도 향상, 설문지 문항 측정 오류 최소화
 - 불포함 오류로 인한 조사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지만, 일상 속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향후 생애주기 기반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청년정책 수립 목적

2. 연구 상세

1) 조사 대상

보호자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법적 혼인이 가능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이기에 법적 혼인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이어야 한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거나 재학·재직 등 생활 권역이어야 하며, 지역별 추이를 예측해보고자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지를 설계하고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최소 모집단 100명 이상의 응답 수집을 목표로 한다. 설문 내용은 기본 정보를 포함한 질적 조사 및 생활만족도와 결혼 가치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한 양적 연구를 진행한다.

2) 설문지 작성 및 예비 조사

선행연구를 토대로 혼인 또는 비혼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을 추출, 이를 근거로 연구원 및 기존 연구소 미혼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 조사 설문지를 제작(약 20문항)·배포하였다. 피드백을 수렴하여 문항 오류들을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하였다.

3) 설문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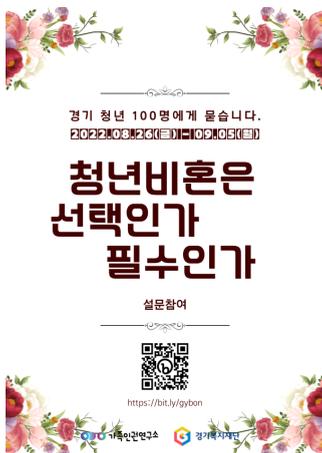
설문지는 응답자의 주요 “비혼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환경, 주거환경, 가정 환경, 자기개발, 결혼 가치관, 자녀 계획의 여섯 분야로 구분하였다. “비혼 선언”의 소

극적·적극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성 교제 여부(Y-결혼 계획, N-이성 교제 중단 사유), 비혼 희망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유형 판단을 위해 일부 질문은 응답에 따라 문항 건너뛰기가 적용되었다.

4) 변수 및 척도

기본 정보에서는 양자 택일(남성, 여성) 또는 다지선다형(생활권역, 연령대, 최종 학력, 현재 혼인 여부)를 사용하였다. 경제적 환경, 주거환경, 가정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가중치를 활용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범위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마찬가지로 위 문항을 포함한 결혼 가치관에 대한 문항은 미응답률을 최소화하고자 ‘보통이다’ 의견을 포함한 1-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5-매우 동의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월 평균 저축·투자 비중과 같은 월 소득 대비 한 달 주거비 부담 항목에 대해서는 퍼센트(%) 슬라이더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보다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기타 의견에는 10자 이내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단답형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성장기와 현재로 나누어 과거와 현재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5) 조사 방법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자료 처리는 가족인권연구소에서 기획·총괄하였으며, 일부 배포는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참여 링크 문자 발송을 통해 실시되었다.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협력하여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청년 패널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가족인권연구소 소셜 미디어 홍보 수단(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타겟 메시지 발송과 온라인 게재를 통해 설문 조사를 배포하였다. 주요 조사 방법은 인터넷 서베이, CAWI(Computer Aided Web Survey: 자기 기입식 웹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대면 조사의 경우 태블

릿PC를 활용한 설문 수집을 수행하였다. 또, 일부 응답은 전화(out-bound) 방식으로도 수집되었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응답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28.0.1.1(15)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생활권역,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응답자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검증을 위해 결측 여부 및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begin{aligned} & \text{가중치 수식} \\ & w = \text{보기의 가중치} \\ & x = \text{보기의 응답수} \\ & (x_1w_1 + x_2w_2 + x_3w_3 \dots x_nw_n) / \text{총계} \end{aligned}$$

7) 권역 구분

권역명	도시명 (권역별 가나다 순)
동부	광주시, 성남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서부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남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북부	가평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3. 데이터 클리닝

생활권역, 연령대, 혼인 여부, 응답 완료 여부로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모든 응답은 214명이었으나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총 응답자 n=134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성별		n	%	생활권역		n	%
유효	남성	82	38.3	유효	동부	38	17.8
	여성	132	61.7		서부	62	29.0
					남부	64	29.9
전체	214	100.0	북부		36	16.8	
			전체		200	93.5	
				결측	기타	14	6.5

연령대		n	%	혼인 여부		n	%
유효	만 19~24세	36	16.8	유효	미혼	163	76.2
	만 25~29세	95	44.4		전체	전체	163
	만 30~34세	65	30.4	결측		무응답	31
	전체	196	91.6		기혼	20	9.3
결측	기타	18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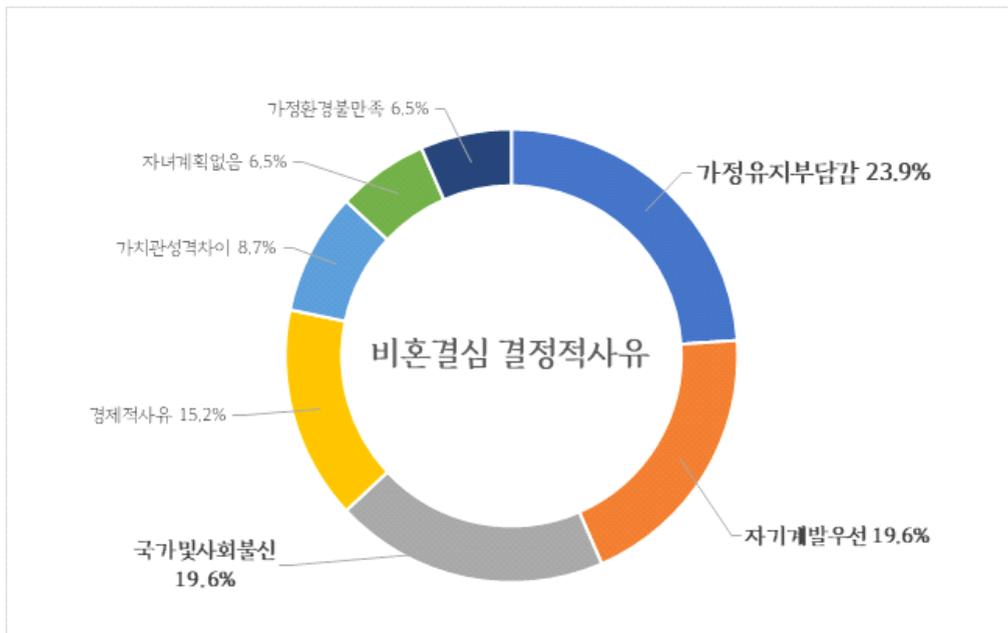
응답 완료		n	%
유효	완료	134	82.2
결측	미완료	29	17.8

항목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응답수 (n)	비율 (%)	응답수 (n)	비율 (%)	응답수 (n)	비율 (%)
연령	만 19~24세	5	3.7	25	18.7	30	22.4
	만 25~29세	26	19.4	41	30.6	67	50.0
	만 30~34세	22	16.4	15	11.2	37	27.6
	합계	53	39.6	81	60.4	134	100.0
생활권역	동부	6	4.5	20	14.9	26	19.4
	서부	16	11.9	22	16.4	38	28.4
	남부	17	12.7	24	17.9	41	30.6
	북부	14	10.4	15	11.2	29	21.6
	합계	53	39.6	81	60.4	134	100.0
최종 학력	고졸	5	3.7	14	10.4	19	14.2
	전문대졸	7	5.2	13	9.7	20	14.9
	4년제졸	35	26.1	48	35.8	83	61.9
	대학원이상	6	4.5	6	4.5	12	9.0
	합계	53	39.6	81	60.4	134	100.0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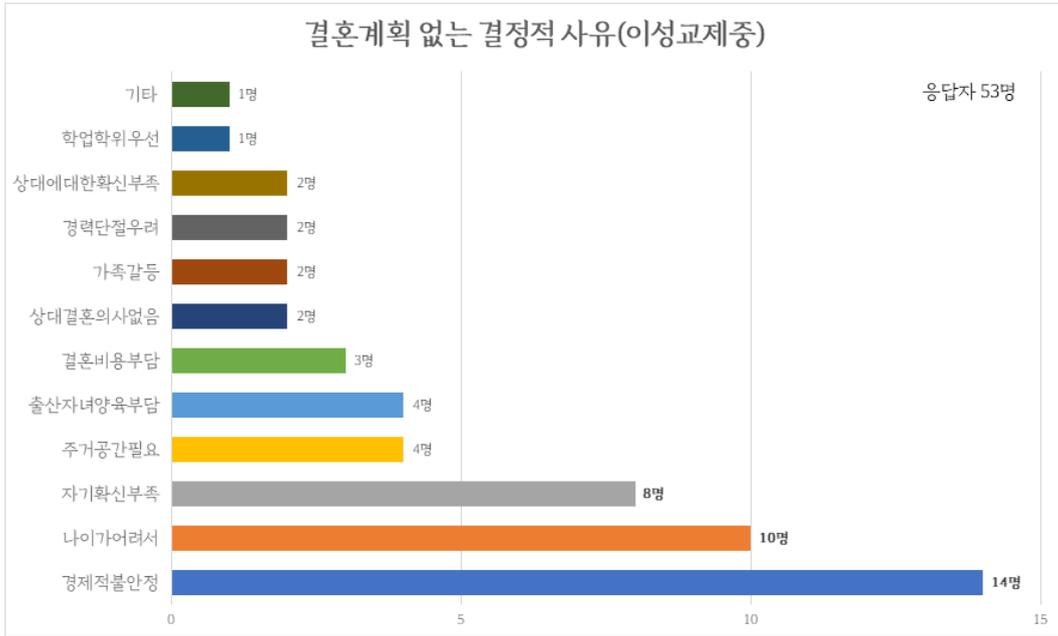
결론

1. 주요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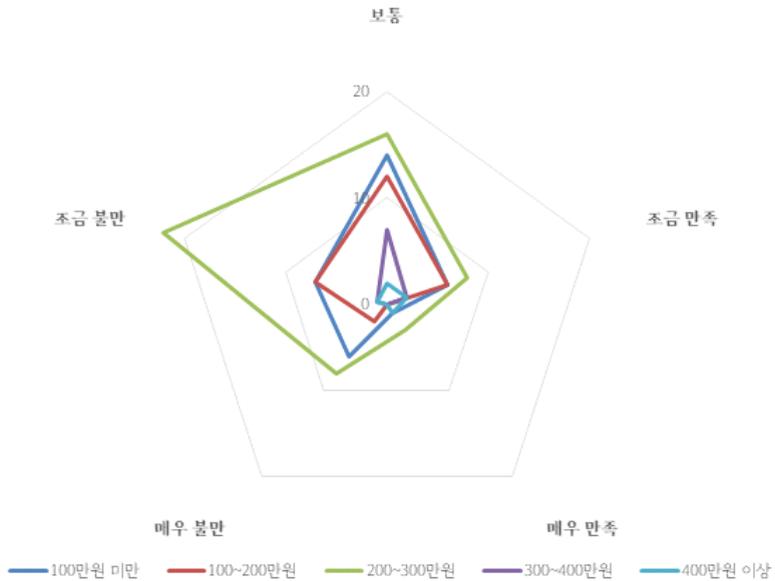


비혼을 직접적으로 선언한 응답자 중 비혼 결심의 결정적 사유로 ① “가정 유지에 대한 부담감(23.9%)”이 가장 높았다. ② “자기개발이 결혼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9.6%였지만, 동시에 ③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의견도 19.6%도 동순위로 많은 응답자가 있었다. 예상 외로 경제적 사유는 15.2%로 위 세 가지 사유보다 후순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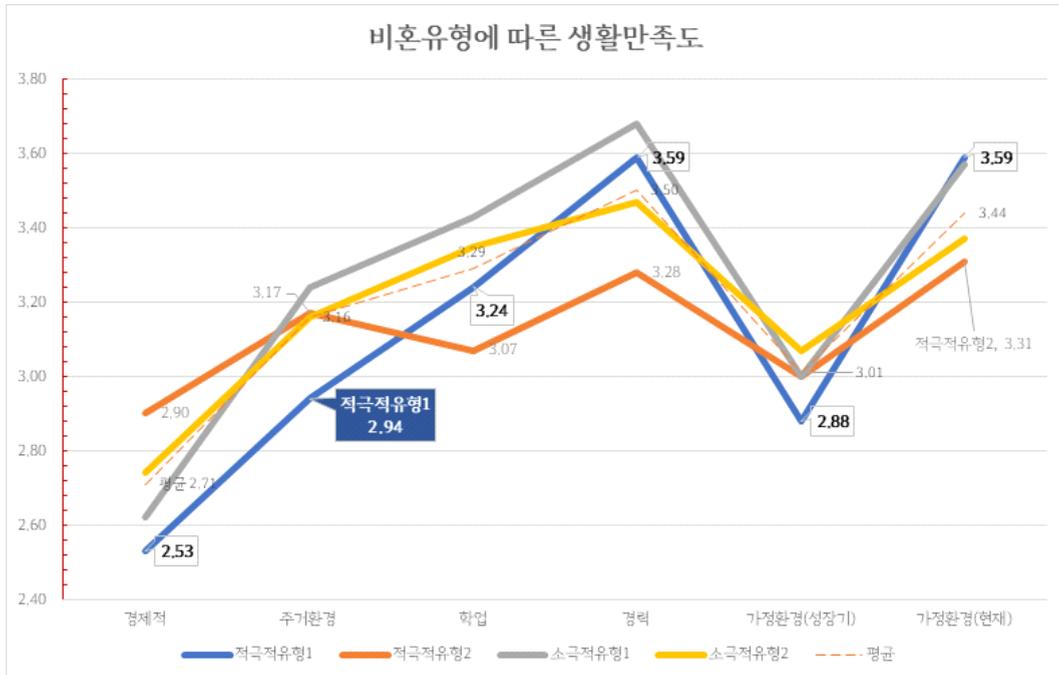
그러나 비혼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성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향후 1년 이내에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한 집단에게 결혼 계획이 없는 결정적 사유에 대해 물었을 때는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혼 계획이 없는 응답자가 두 번째 순위였다. 이어 주거공간 마련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조금 불만 의견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월수입이지만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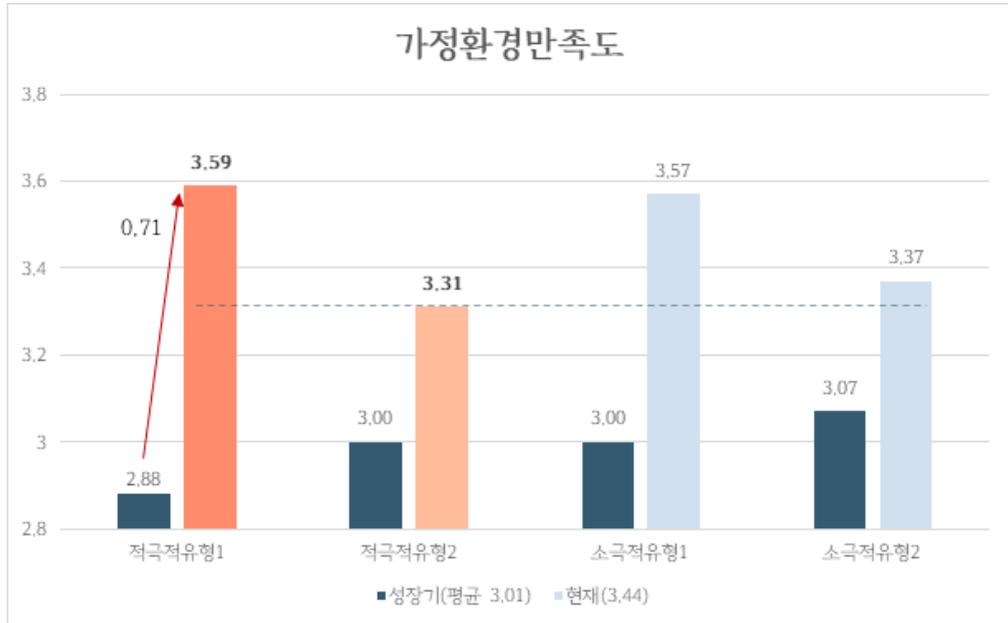


1) 비혼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이성 교제를 하고 있지만 비혼을 원하는 집단의 생활만족도는 타 집단 대비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 환경, 주거환경에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징적인 점은 이 집단은 성장기와 현재의 가정환경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성장기의 가정환경은 타 집단 대비 가장 낮은 만족도였으나 현재 가정환경은 타 집단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만족도에서 또 다른 유형의 청년 비혼도 발견할 수 있었다.

2) 가정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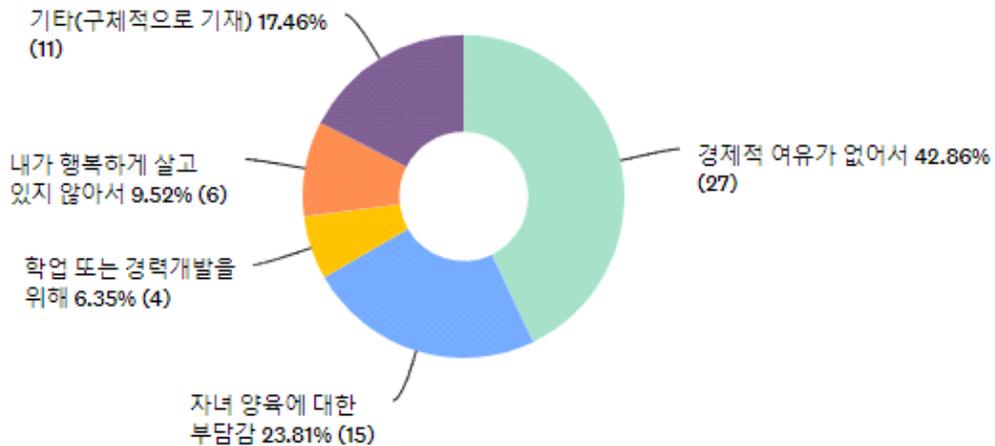


가정환경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성장기 3.07보다 현재 3.37로 지금의 가정환경에 만족하는 편이었다. 다만, 적극적 유형 1은 과거에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지만, 현재는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2.88에서 3.59로 0.71 상승). 적극적 유형 2는 과거 가정환경 만족도 평균 3.01보다 약간 낮은 3.0을 보였으나, 현재는 네 집단 평균 만족도 3.44보다 0.31 낮은 3.31로 가장 낮은 만족도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적극적 비혼 유형 1처럼 과거보다 현재 가정환경에 만족하는 경우가거나 또는 적극적 유형 2와 같이 현재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로, 두 가지의 적극적 비혼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조건 A. 과거 대비 현재 가정환경에 만족감이 큰 경우 or

조건 B. 현재 가정환경에 상대적으로 불만족한 경우

자녀 계획에 대한 응답 중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특정 사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경제적 요인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23.8%였으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5%였다.



기타에는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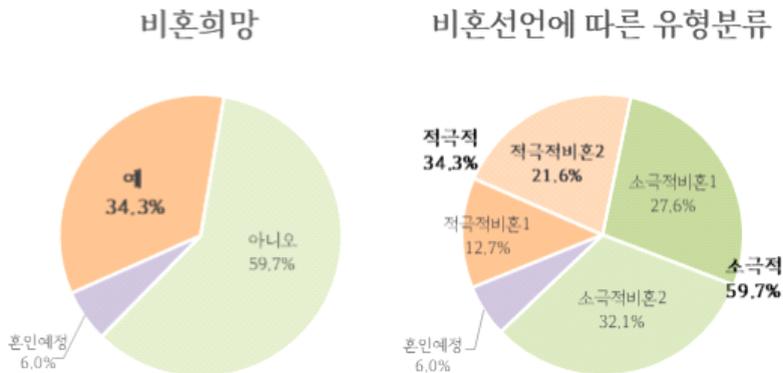
2. 비혼 태도 유형

비혼 희망	n	%
예	46	34.3
아니오	80	59.7
혼인 예정	8	6.0
전체	134	100.0

조사 결과 전체 134명의 청년 응답자 중 전체의 34.3%인 46명이 비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은 80명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하였고, 1년 이내에 결혼 계획이 있는 혼인 예정 집단은 8명(6%)으로 그 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이는 비혼에 대한 태도 기준으로 재해석한다면, 다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비혼을 선언하는 경우는 ‘적극적 비혼’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비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현재 비혼 상태인 ‘소극적 비혼’ 집단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비혼 유형의 분류는 정사분면과 양·음수의 수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예’일 경우 양수(+), ‘아니오’일 경우 음수(-)로 반영하여 그래프에 적용하였다. X축은 비혼 선언 경계선으로, Y축은 현재 이성 교제 여부의 기준이 된다. 제1사분면은 「적극적 비혼 1」 유형으로 비혼 선언과 동시에 이성 교제를 하고 있고, 제4사분면은 비혼 선언은 하였지만 이성 교제는 하고 있지 않은 「적극적 비혼 2」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제2사분면과 제3사분면은 비혼 선언은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 교제 여부에 따라 이성 교제 중이면 「소극적 비혼 1」 유형을, 이성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소극적 비혼 2」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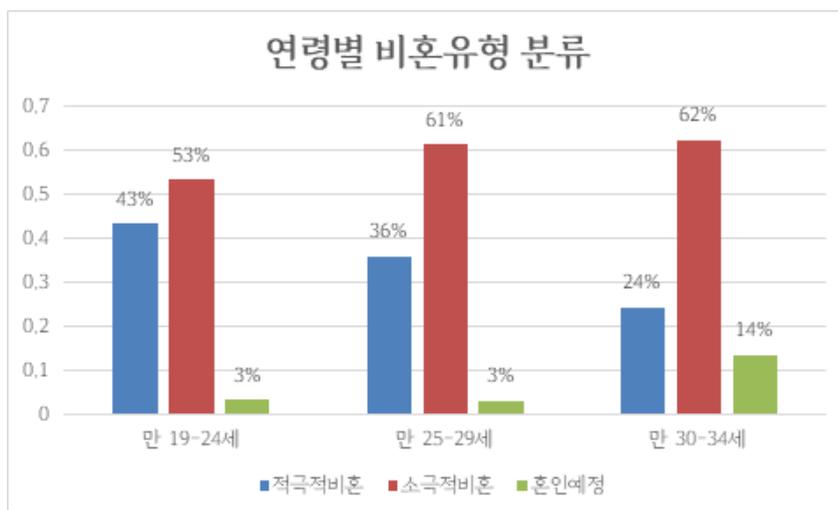


비혼 선언과 이성 교제 여부 교차 분석					
단위: 명		비혼 선언			전체
		아니오	예	혼인 예정	
이성교제	예	소극적 비혼 1 37 (27.6%)	적극적 비혼 1 17 (12.7%)	8 (6.0%)	62
	아니오	소극적 비혼 2 43 (32.1%)	적극적 비혼 2 29 (21.6%)	-	72
전체		80	46	8	134

1) 연령별 비혼 유형

연령별 비혼 유형 분류				
비혼 태도	연령대			합계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적극적 비혼	13	24	9	46
소극적 비혼	16	41	23	80
혼인 예정	1	2	5	8
연령별 전체	30	67	37	134

연령별 비혼 분류에서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적극적 비혼 유형 비중은 감소하였다. 만 25세부터는 적극적보다 소극적 비혼 태도로 비중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혼인 예정 집단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비중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 비혼 2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연령대와 비혼 유형 교차표 (* 혼인 예정 제외)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전체
만 19~24세	n	-	13	5	11	29
	%	-	44.8%	17.2%	37.9%	100.0%
만 25~29세	n	12	12	17	24	65
	%	18.5%	18.5%	26.2%	36.9%	100.0%
만 30~34세	n	5	4	15	8	32
	%	15.6%	12.5%	46.9%	25.0%	100.0%
전체	n	17	29	37	43	126
	%	13.5%	23.0%	29.4%	34.1%	100.0%

2) 경제적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만족도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3.0)	조금 만족	매우 만족
평균	N	표준편차	n	16	38	51	24	5
2.73	134	1.012	%	11.9	28.4	38.1	17.9	3.7

모든 응답자의 경제적 만족도 전체 가중평균은 2.73으로 조금 불만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수준 가중평균은 2.47(월 200~300만 원)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항목 범주에 400만 원 이상으로 구체적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수치에 유의하다기보다 추세에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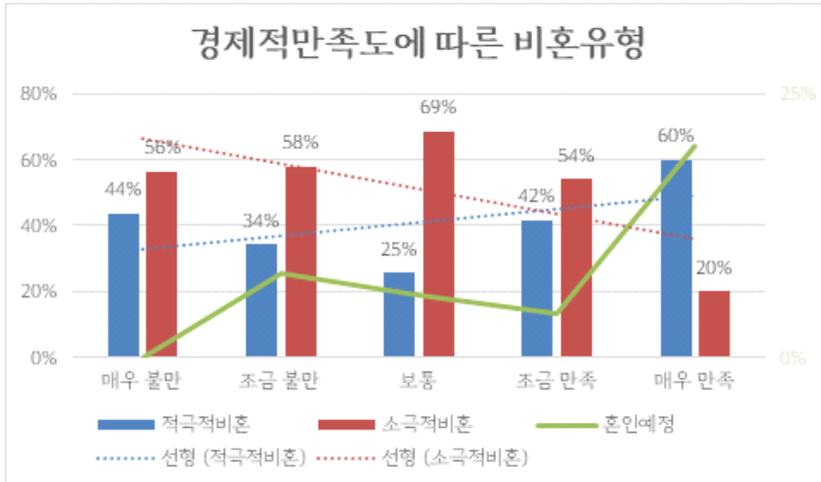
	적극적 비혼	이성 교제 여부		전체		소극적 비혼	이성 교제 여부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월 소 득	100만 원 미만	2	15	17	월 소 득	100만 원 미만	6	11	17				
	100~200만 원	4	6	10		100~200만 원	7	10	17				
	200~300만 원	10	7	17		200~300만 원	18	15	33				
	300~400만 원	0	1	1		300~400만 원	4	4	8				
	400만 원 이상	1	0	1		400만 원 이상	2	3	5				
전체				17	29	46	전체				37	43	80

경제적 만족도						전체
월 소득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100만 원 미만	6	7	14	6	1	34
100~200만 원	2	7	12	6	0	27
200~300만 원	8	22	16	8	3	57
300~400만 원	0	1	7	2	0	10
400만 원 이상	0	1	2	2	1	6
	16	38	51	24	5	134

월 소득과 비혼 유형 교차표						
월 소득/비혼 유형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전체
100만 원 미만	n	2	15	6	11	34
	%	11.8%	51.7%	16.2%	25.6%	27.0%
100~200만 원	n	4	6	7	10	27
	%	23.5%	20.7%	18.9%	23.3%	21.4%
200~300만 원	n	10	7	18	15	50
	%	58.8%	24.1%	48.6%	34.9%	39.7%
300~400만 원	n	0	1	4	4	9
	%	0.0%	3.4%	10.8%	9.3%	7.1%
400만 원 이상	n	1	0	2	3	6
	%	5.9%	0.0%	5.4%	7.0%	4.8%
전체	n	17	29	37	43	126
	%	100.0%	100.0%	100.0%	100.0%	100.0%

적극적 유형 1에서는 월 200~300만 원 소득자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적극적 유형 2에서는 1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51.7%로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대체로 소득 구간이 200~300만 원이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 미만이 27%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자를 기록하였다.

3) 경제적 만족도에 따른 비혼 유형 특징



상대적인 경제적 만족도에 따른 비혼 유형을 분석한 도표이다. 적극적 비혼 유형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비혼의 경우 경제적 만족도가 적극적 비혼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혼인 예정 집단은 ‘매우 만족’ 응답이 가장 높았다.

비혼 유형/경제적 만족도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명)
적극적 비혼	7	13	13	10	3	46
소극적 비혼	9	22	35	13	1	80
혼인 예정	0	3	3	1	1	8
합계	16	38	51	24	5	134

그러나 비혼을 원하는 응답자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적극적 비혼 유형 2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경제적 만족도와 실제 벌 수 있는 수입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소극적 비혼 집단에서도 월 소득 200~300만 원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동일선상에서 적극적 비혼 유형 응답자도 가장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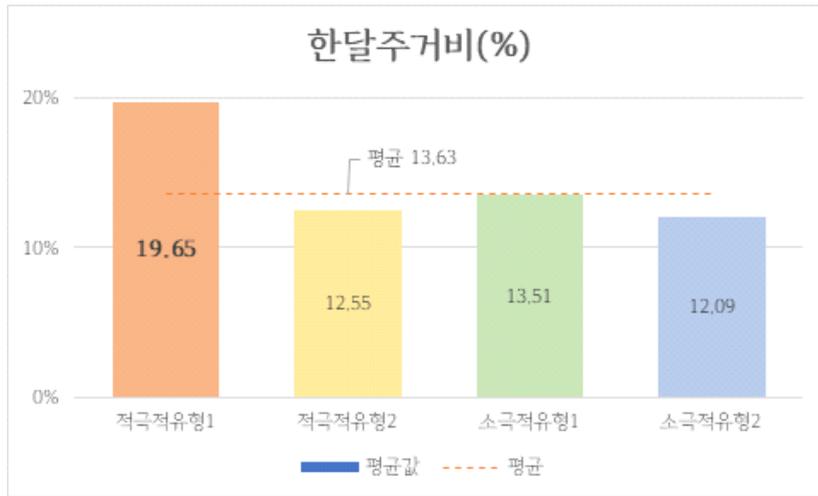
근로 형태에 따른 비혼 희망 교차표					
근로 형태		비혼 희망			전체
		예	아니오	혼인 예정	
정규직	n	17	37	5	59
	%	37.0%	46.3%	62.5%	44.0%
비정규직	n	6	12	1	19
	%	13.0%	15.0%	12.5%	14.2%
프리랜서	n	4	5	0	9
	%	8.7%	6.3%	0.0%	6.7%
파견직	n	0	0	1	1
	%	0.0%	0.0%	12.5%	0.7%
자영업	n	1	4	0	5
	%	2.2%	5.0%	0.0%	3.7%
아르바이트	n	6	10	0	16
	%	13.0%	12.5%	0.0%	11.9%
기타	n	12	12	1	25
	%	26.1%	15.0%	12.5%	18.7%
전체	n	46	80	8	134
	%	100.0%	100.0%	100.0%	100.0%

4) 주거환경

결측값을 제외한 일부 응답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부동산 소유		자가	전세/반전세	월세	부모님	기타	전체
적극적 유형 1	n	-	3	2	1	-	6
	%		50.00%	33.33%	16.67%		100.00%
적극적 유형 2	n	3	3	2	9	1	18
	%	16.67%	16.67%	11.11%	50.00%	5.56%	100.00%
소극적 유형 1	n	-	5	3	10	-	18
	%		27.78%	16.67%	55.56%		100.00%
소극적 유형 2	n	1	4	3	14	-	22
	%	4.55%	18.18%	13.64%	63.64%		100.00%
전체	n	4	15	10	34	1	64

가장 많은 응답자 수는 소극적 유형 2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한다고 하였다. 다른 유형을 모두 포함한 범주 내에서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적극적 유형 2는 다른 유형 대비 자가 소유가 가장 많았다.



한 달 주거비는 적극적 유형 1이 가장 높았고 모든 유형 중 유일하게 평균값을 초과하는 유형이었다.

5) 청년주거지원제도 활용성 (주택 청약, GH/LH 등)

주택 청약 가입과 비혼 유형 교차표						
주택 청약 가입기간/비혼 유형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전체
2년 이상	n	11	13	25	20	69
	%	15.9%	18.8%	36.2%	29.0%	100.0%
12~24개월	n	2	3	2	6	13
	%	15.4%	23.1%	15.4%	46.2%	100.0%
1~12개월	n	1	1	3	5	10
	%	10.0%	10.0%	30.0%	50.0%	100.0%
없음	n	3	12	7	12	34
	%	8.8%	35.3%	20.6%	35.3%	100.0%
전체	n	17	29	37	43	126
	%	13.5%	23.0%	29.4%	34.1%	100.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적극적 유형 1이 15.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소극적 유형은 대체로 적극적 유형보다

2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체의 27%(34명)가 주택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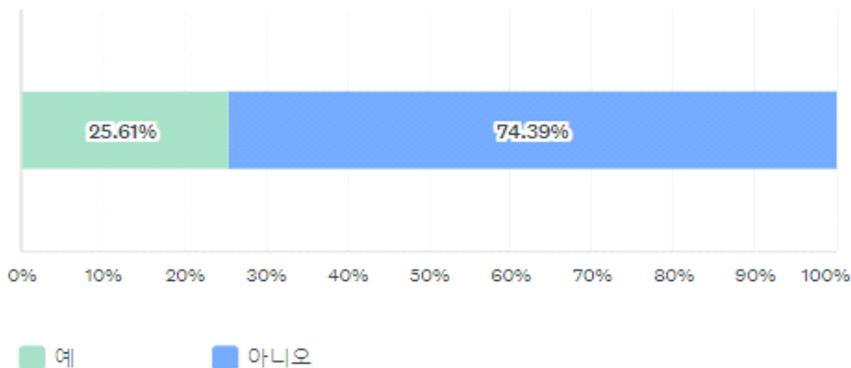
주택 청약 가입과 청년주택지원제도 인지 교차표				
가입기간/제도 인지		예	아니오	전체
2년 이상	n	45	24	69
	%	65.2%	34.8%	100.0%
12~24개월	n	9	4	13
	%	69.2%	30.8%	100.0%
1~12개월	n	5	5	10
	%	50.0%	50.0%	100.0%
없음	n	17	17	34
	%	50.0%	50.0%	100.0%
전체	n	76	50	126
	%	60.3%	39.7%	100.0%

경기주택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지원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다’가 76명이었고, 아닌 경우가 50명이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임에도 청년주택지원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24명으로 집계

되었다. 주택 청약에 가입하였어도 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반면, 알고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가입한 경우의 응답자 수가 17명으로 같았다.

6) 청년주거지원제도 실생활 적용 여부

응답자 전체에서 주택 청약에 가입한 82명 중 청년주거지원제도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명(25.61%)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1명(74.39%)으로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제도 활용 실거주 여부와 비혼 유형 교차표							
청년주택 거주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혼인 예정	전체
예	빈도	3	0	5	2	1	11
	%	27.3%	0.0%	45.5%	18.2%	9.1%	100.0%
아니오	빈도	7	13	17	29	5	71
	%	9.9%	18.3%	23.9%	40.8%	7.0%	100.0%
전체	빈도	10	13	22	31	6	82
	%	12.2%	15.9%	26.8%	37.8%	7.3%	100.0%

동거 가족 수와 비혼 유형 교차표						
동거 가족 수 (본인 포함)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전체
1명	n	4	5	14	6	29
	%	13.8%	17.2%	48.3%	20.7%	100.0%
2명	n	5	-	4	5	14
	%	35.7%	0.0%	28.6%	35.7%	100.0%
3명	n	5	9	11	12	37
	%	13.5%	24.3%	29.7%	32.4%	100.0%
4명	n	2	11	6	18	37
	%	5.4%	29.7%	16.2%	48.6%	100.0%
5명	n	1	4	2	2	9
	%	11.1%	44.4%	22.2%	22.2%	100.0%
전체	n	17	29	37	43	126
	%	13.5%	23.0%	29.4%	34.1%	100.0%

이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는 3인 및 4인 가족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소극적 유형 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외에 1인 가구는 소극적 유형 1이 가장 많았다. 적극적 유형 2에서는 4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동거 가족 수 문항은 설문지가 미혼 남녀 대상이었기 때문에 2인 가구라고 응답한 경우는 혈연관계에 있는 한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7) 환경 요인 만족도 평균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의 95% 신뢰 구간		min.	max.
						하한	상한		
경제적 환경	적극적 유형 1	17	2.53	1.328	.322	1.85	3.21	1	5
	적극적 유형 2	29	2.90	1.047	.194	2.50	3.29	1	5
	소극적 유형 1	37	2.62	.924	.152	2.31	2.93	1	4
	소극적 유형 2	43	2.74	.928	.142	2.46	3.03	1	5
	전체	126	2.71	1.011	.090	2.54	2.89	1	5
주거환경	적극적 유형 1	17	2.94	1.249	.303	2.30	3.58	1	5
	적극적 유형 2	29	3.17	1.167	.217	2.73	3.62	1	5
	소극적 유형 1	37	3.24	1.065	.175	2.89	3.60	1	5
	소극적 유형 2	43	3.16	1.194	.182	2.80	3.53	1	5
	전체	126	3.16	1.148	.102	2.96	3.36	1	5
학업	적극적 유형 1	17	3.24	1.147	.278	2.65	3.83	1	5
	적극적 유형 2	29	3.07	.961	.178	2.70	3.43	1	5
	소극적 유형 1	37	3.43	1.042	.171	3.09	3.78	1	5
	소극적 유형 2	43	3.35	1.213	.185	2.98	3.72	1	5
	전체	126	3.29	1.096	.098	3.10	3.49	1	5
경력	적극적 유형 1	17	3.59	1.176	.285	2.98	4.19	2	5
	적극적 유형 2	29	3.28	1.032	.192	2.88	3.67	1	5
	소극적 유형 1	37	3.68	1.107	.182	3.31	4.04	1	5
	소극적 유형 2	43	3.47	1.222	.186	3.09	3.84	1	5
	전체	126	3.50	1.137	.101	3.30	3.70	1	5
가정환경 (성장기)	적극적 유형 1	17	2.88	1.495	.363	2.11	3.65	1	5
	적극적 유형 2	29	3.00	1.363	.253	2.48	3.52	1	5
	소극적 유형 1	37	3.00	1.225	.201	2.59	3.41	1	5
	소극적 유형 2	43	3.07	1.404	.214	2.64	3.50	1	5
	전체	126	3.01	1.342	.120	2.77	3.24	1	5
가정환경 (현재)	적극적 유형 1	17	3.59	1.502	.364	2.82	4.36	1	5
	적극적 유형 2	29	3.31	1.137	.211	2.88	3.74	1	5
	소극적 유형 1	37	3.57	.929	.153	3.26	3.88	2	5
	소극적 유형 2	43	3.37	1.310	.200	2.97	3.78	1	5
	전체	126	3.44	1.190	.106	3.23	3.65	1	5

※ 5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

8) 결혼 가치관

필요성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 구간		Min.	Max.	
					하한	상한			
결혼 필요성	적극적 유형 1	17	1.82	1.015	.246	1.30	2.35	1	4
	적극적 유형 2	29	1.62	.728	.135	1.34	1.90	1	4
	소극적 유형 1	37	3.54	.960	.158	3.22	3.86	2	5
	소극적 유형 2	43	3.37	1.134	.173	3.02	3.72	1	5
	전체	126	2.81	1.294	.115	2.58	3.04	1	5
혼인신고 의무성	적극적 유형 1	17	2.53	1.375	.333	1.82	3.24	1	5
	적극적 유형 2	29	2.97	1.239	.230	2.49	3.44	1	5
	소극적 유형 1	37	3.65	1.274	.209	3.22	4.07	1	5
	소극적 유형 2	43	4.00	1.069	.163	3.67	4.33	2	5
	전체	126	3.46	1.312	.117	3.23	3.69	1	5
자녀 출산과 결혼관계	적극적 유형 1	17	3.12	1.764	.428	2.21	4.02	1	5
	적극적 유형 2	29	3.38	1.474	.274	2.82	3.94	1	5
	소극적 유형 1	37	3.38	1.479	.243	2.89	3.87	1	5
	소극적 유형 2	43	3.58	1.384	.211	3.16	4.01	1	5
	전체	126	3.41	1.477	.132	3.15	3.67	1	5

9) 자녀 계획

자녀 계획 수		비혼 유형					혼인 예정	전체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없다	n	15	25	7	15	1	63	
	%	88.2%	86.2%	18.9%	34.9%	12.5%	47.0%	
1명	n	0	2	15	9	1	27	
	%	0.0%	6.9%	40.5%	20.9%	12.5%	20.1%	
2명	n	2	1	12	14	4	33	
	%	11.8%	3.4%	32.4%	32.6%	50.0%	24.6%	
3명	n	0	1	3	5	2	11	
	%	0.0%	3.4%	8.1%	11.6%	25.0%	8.2%	
전체	n	17	29	37	43	8	13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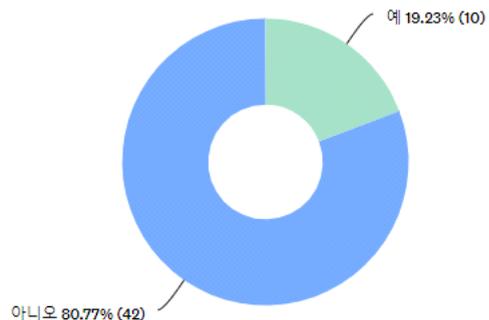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사유 (중복 응답)			
	반응		케이스 중 %
	n	퍼센트	
자기계발 중요	30	20.4%	41.7%
학업/업무	30	20.4%	41.7%
만날 기회가 없어서	37	25.2%	51.4%
과거 이성 교제 상처	5	3.4%	6.9%
젠더 이슈	5	3.4%	6.9%
타인에 대한 불신감	6	4.1%	8.3%
이성관계 발전 부담	11	7.5%	15.3%
경제적 부담	16	10.9%	22.2%
기타	7	4.8%	9.7%
전체	147	100.0%	204.2%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사유는 평균적으로 1~2개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었다. 이어서 자기계발과 학업/업무가 바빠서 만나지 않은 경우가 각각 41.7%를 차지하였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 원인이 4순위로, 자기계발 관련 사유보다 후순위였다.

3. 기타

1) 상속 부동산

혼인 예정 응답자를 포함하여 청년주택 지원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중 상속 부동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 수는 10명으로 19.23%였다. 반면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42명(80.77%)였다. 청년주택지원제도를 모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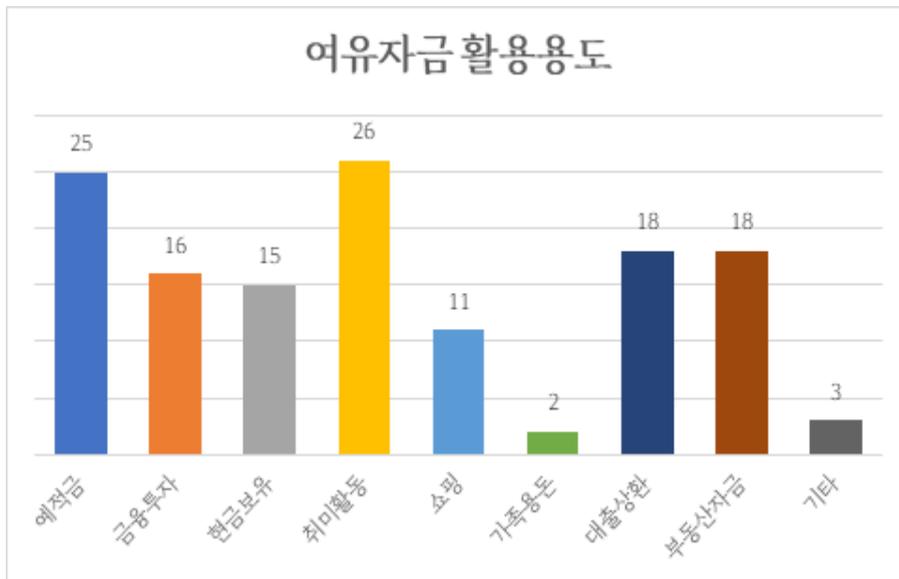
대다수는 부모나 일가 친척에게 상속받을 부동산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월 평균 저축·투자

응답자는 월 소득의 평균 38%를 저축·투자한다고 응답하였다. (혼인 예정자 제외)

3) 여유자금 활용 용도

혼인 예정을 포함한 모든 응답자는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취미활동에 쓴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예·적금 상품 가입은 25명으로 2순위를 기록하였고, 대출 상환과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 18명으로 동순위였다.



4) 주요 학비 부담 수단

주요 학비 부담 수단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전체
부모	n	8	17	18	23	66
	%	12.1%	25.8%	27.3%	34.8%	100.0%
국가장학금	n	5	7	7	12	31
	%	16.1%	22.6%	22.6%	38.7%	100.0%
자부담	n	3	3	7	6	19
	%	15.8%	15.8%	36.8%	31.6%	100.0%
금융대출	n	1	2	5	2	10
	%	10.0%	20.0%	50.0%	20.0%	100.0%
전체	n	17	29	37	43	126
	%	13.5%	23.0%	29.4%	34.1%	100.0%

5) 경력 개발 방법

경력 개발 방법		적극적 유형 1	적극적 유형 2	소극적 유형 1	소극적 유형 2	전체
학교-직장 연계	n	5	5	11	8	29
	%	17.2%	17.2%	37.9%	27.6%	100.0%
인터넷 강의	n	1	9	7	9	26
	%	3.8%	34.6%	26.9%	34.6%	100.0%
정부 지원	n	5	6	8	11	30
	%	16.7%	20.0%	26.7%	36.7%	100.0%
학원	n	4	8	7	12	31
	%	12.9%	25.8%	22.6%	38.7%	100.0%
기타	n	2	1	4	3	10
	%	20.0%	10.0%	40.0%	30.0%	100.0%
전체	n	17	29	37	43	126
	%	13.5%	23.0%	29.4%	34.1%	100.0%

4. 비혼 태도 유형별 특징

적극적 유형 1 (17명)	비혼 선언을 하고 이성 교제 중인 상태		
연령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5~29세 70.6%, 만 30~34세 29.4%로 타 유형보다 연령대가 다소 높은 편 		
경제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00~300만 원 소득자 다수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 소유자 없음. 타 유형 대비 전세/반전세 거주자가 50%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한 달 주거비: 평균 월 소득의 19.65% (전체 평균의 13.63%) 주택 청약 가입: 12~24개월 및 2년 이상 다수 (31.3%) 동거 가족 수: 1~3명 		
만족도	3.128 (3.185)	경제	2.53(2.71)
		주거	2.94(3.16)
		학업	3.24(3.29)
		경력	3.59(3.50)
		가정 (성장기)	2.88(3.01)
		가정 (현재)	3.59(3.44)
결혼 가치관	2.490 (3.227)	결혼 필요성	1.82(2.81)
		혼인신고 의무성	2.53(3.46)
		결혼 후 자녀 출산	3.12(3.41)
자녀 계획	없음 88.2%		

적극적 유형 2 (29명)	비혼 선언을 하고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상태		
연령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낮은 편 만 19~24세 45%, 만 24~29세 41% 		
경제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 원 미만 51.7%, 100~300만 원 48.3% 400만 원 이상 소득자 없음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26.4%) 한 달 주거비 평균: 월 소득의 12.55% 주택 청약 가입: 2년 이상 45%, 없음 41.1%로 양분 		
만족도	3.128 (3.185)	경제	2.90(2.71)
		주거	3.17(3.16)
		학업	3.07(3.29)
		경력	3.28(3.50)
		가정 (성장기)	3.00(3.01)
		가정 (현재)	3.59(3.44)
결혼 가치관	2.657 (3.227)	결혼 필요성	1.62(2.81)
		혼인신고 의무성	2.97(3.46)
		결혼 후 자녀 출산	3.38(3.41)
자녀 계획	없음 86.2%		

소극적 유형 1 (37명)	비혼 선언을 하지 않고 이성 교제 중인 상태		
연령대	• 만 25~34세 86.5%		
경제적 환경	• 월 200~300만 원이 48.6%로 가장 많았음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경우(55.56%)가 가장 많음 • 한 달 주거비: 월 소득의 평균 13.51% • 주택 청약 가입: 2년 이상(36.2%)이 가장 많았음 		
만족도	3.257 (3.185)	경제	2.62(2.71)
		주거	3.24(3.16)
		학업	3.43(3.29)
		경력	3.68(3.50)
		가정 (성장기)	3.00(3.01)
		가정 (현재)	3.57(3.44)
결혼 가치관	3.523 (3.227)	결혼 필요성	3.54(2.81)
		혼인신고 의무성	3.65(3.46)
		결혼 후 자녀 출산	3.38(3.41)
자녀 계획	자녀 계획을 원하는 응답자가 타 유형 대비 가장 많았음(81.1%) * 자녀 1명(40.5%)이 가장 비중 높음		

소극적 유형 2 (43명)	비혼 선언을 하지 않고 이성 교제도 하지 않는 상태		
연령대	만 19~34세 81.4%		
경제적 환경	• 월 200~300만 원(34.9%) 및 월 100만 원 미만인 100~200만 원보다 많았음(2.3%)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63.64%)하는 경우가 타 유형 대비 가장 많았음 • 한 달 주거비: 월 소득의 평균 12.09%로 타 유형 대비 가장 낮음 		
만족도	3.193 (3.185)	경제	2.74(2.71)
		주거	3.16(3.16)
		학업	3.35(3.29)
		경력	3.47(3.50)
		가정 (성장기)	3.07(3.01)
		가정 (현재)	3.37(3.44)
결혼 가치관	3.650 (3.227)	결혼 필요성	3.37(2.81)
		혼인신고 의무성	4.00(3.46)
		결혼 후 자녀 출산	3.58(3.41)
자녀 계획	있음(65.1%) 중 자녀 2명 출산(32.6%)이 가장 많았음		

참고문헌

- e-나라지표, 2022, 국가지표체계 - 실업률.
- e-나라지표, 2022, 국가지표체계 - 자살률.
- e-나라지표, 2022,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 In: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 한국학중앙연구원.
- KDI경제정보센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Available at: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6628&topic=>
- World Happiness Report, 2022, World Happiness Report[online]. Available at: <http://worldhappiness.report/ed/2021/> [Accessed 1 Sep. 2022]
- 경기데이터드림, 2022, 경기도 고시원 현황.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경기도, 2020,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 경기도, 2020, 2020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경기통계, 2022,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Available at: https://stat.gg.go.kr/statgg/tblInfo/TblInfoList.html?vw_cd=MT_NTITLE
- 국가기록원, 2022, 인구 동태 통계 연보, 성별 출생아 수, 인구정책. Available at: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statisticsPopup_15.do
- 남양주시, 2022, 공고 제2022-1055호(2022.6.2.).
- 뉴스시스, 2022,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금 경기도는 폐지 수순...지자체도 눈치 봐. Available at: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5_0001760133
- 대한민국 법원, 2021 사법 연감.
- 류상희·정병삼·박균열, 2019, 현대 한국인의 결혼 결정 요인 고찰, 효학연구[online], No. 29, 21-49쪽. Available at: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73938> [Accessed 30 Mar. 2022]
- 매일경제, 2020, '취업 한파'에 대졸 예정자 10명 중 1명만 정규직 취업...인문계는 더 심

- 해.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97744/>
- 박재규, 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 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 Vol.3, 104-139쪽.
-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보건복지부, 2022, 자살 심리 부검, 죽음으로 삶을 이야기하다.
- 서울경제, 2022, 날아든 ‘빚투 청구서’…2030 도산 폭탄 터지나. Available at: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IPKBLKT>
-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공고 목록. Available at: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
- 에듀프레스, 2022,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학생 많을수록 학교 성적 낮다. Available at: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250>
- 여성가족부, 2021,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2021~2025).
- 연합뉴스, 2021, 지난해 남아 성비 43년 만에 최저…역사로 남은 ‘남아 선호’. Available at: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8020800002>
- 중앙일보, 2020, “결혼해야 한다”는 경기도민 3년 새 63%→52%. Available at: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7559>
- 최유정·신아름·최섯별, 2015, 한국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족과 문화, No.27, 180-211쪽.
- 쿠키뉴스, 2022, 추첨제 아니라 기대했는데…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논란. Available at: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190147>
- 통계청, 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 인구·가구 기본 항목.
- 통계청, 2021, 2020년 신혼 부부 통계.
- 통계청, 2021,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 통계청, 2022, 1인 가구 수, 인구주택총조사, 대화형 통계지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통계청, 2022,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 가구·주택 특성 항목.
- 통계청, 2022, 2021년 인구 동향 조사.
- 통계청, 2022,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통계청, 2022, 2021년 혼인·이혼 통계. Available at: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7326

통계청, 2022, 국제결혼 현황.

통계청, 2022, 시도/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1990~2021).

통계청, 2022, 출생·사망 통계(잠정)

통계청, 2022, 평균 초혼 연령, 인구주택총조사, 대화형 통계지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한겨레, 2020, 경기도민 절반은 “결혼, 꼭 안 해도 괜찮아”...집값 부담 등 ‘비혼 증가’.
Available at: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69504.html>

한국경제, 2022, “친구 따라 ‘영끌’로 집 샀다가 밤잠 설칩니다”. Available at: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62031316>

부록 (설문지)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기본정보

* 귀하의 성별

- 남성
- 여성

* 현재 어느 도시에 거주 또는 생활 하십니까?

- 경기 동부권역 - 광주, 성남, 양평, 여주, 이천, 하남시
- 경기 서부권역 - 과천,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의왕시
- 경기 남부권역 - 수원,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시
- 경기 북부권역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시
- 그 외

*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만 19~24세 이하
- 만 25~29세 이하
- 만 30~34세 이하
- 해당 사항 없음

* 최종학력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4년제)
- 대학원(석,박사)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 현재 혼인 여부

- 예 (1년 이상 사실혼 포함)
- 아니오
- 기타(이혼, 사별 등)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경제적환경

* 나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	★	★	★	★

* 근로형태

소득	근로
	<input type="text"/>

* 현재 나의 평균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	★	★	★

* 월 평균 저축 또는 투자 비중 (%)

0	50	100	<input type="text"/>
<input type="range"/>			

* 나는 (청년)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하였다

- 없음
- 12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2년 이상

* 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LH의 청년주택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

- 예
- 아니오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 나는 부모님 또는 일가친척에게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다.(또는 이미 상속 받았다)

- 예
- 아니오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 청년주거지원제도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

- 예
- 아니오

* 현재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활용해 거주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정환경

*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성장기	현재
만족도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불만 또는 만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택사항)

* 현재 나를 포함하여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가족 수

-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자기계발

* 나는 나의 학업(학력, 학업성적 등) 대해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	★	★	★	★

* 나는 나의 경력(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직장근무) 대해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	★	★	★	★

* 자기계발은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	★	★	★	★

* 학비 부담은 주로

- 부모님
- 정부지원(국가장학금 등)
- 기타(10자이내)
- 자부담(장학금 포함)
- 금융대출

* 경력개발 방법

- 학교 또는 직장 연계 프로그램
- 인터넷강의
- 기타(10자이내)
- 워크넷(지역고용센터,내일배움카드)
- 학원(자부담)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가치관

* 결혼은 나에게



* 결혼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 자녀 출산은 반드시 결혼 이후에 가능하다.



* 나의 자녀 계획은

- 없다
- 1명
- 2명
- 3명 이상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자녀 계획

* 자녀 계획 없는 이유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 학업 또는 경력개발을 위해
- 자녀 외에 부모님 부양
-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아서
-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이성교제여부

* 나는 현재 이성교제 중이다

- 예
- 아니오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결혼계획

* 향후 1년 이내에 결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 결혼 계획을 하지 않은 결정적 사유 (택1)

-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서
- 주거공간 마련
- 상대가 결혼의사 없음
- 부모님 또는 일가친척 갈등
-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 기타(10자 이내)
- 결혼비용 부담
- 학업/학위, 자격증 취득 우선
-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 나이가 아직 어려서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이성교제 하지 않는 이유

* 현재 이성교제 하지 않는 이유(중복선택)

- | | |
|---|--|
| <input type="checkbox"/> 자기계발이 더 중요하다 | <input type="checkbox"/> 나와 다른 성별과 만나고 싶지 않다 |
| <input type="checkbox"/> 학업/업무가 바빠서 | <input type="checkbox"/>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
| <input type="checkbox"/> 만날 기회가 없었다 | <input type="checkbox"/>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관계 발전이 부담스럽다 |
| <input type="checkbox"/> 이전 이성교제로 인한 상처가 크다 |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
| <input type="checkbox"/> 기타(20자 이내) | |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비혼희망여부

* 비혼을 희망 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가족인권연구소] 경기 청년 비혼에 관한 연구 _경기청년지원
사업단

비혼선택사유

* 비혼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택1)

- | | |
|-------------------------------|---------------------------------------|
| <input type="radio"/> 경제적사유 | <input type="radio"/> 가정환경 불만족 |
| <input type="radio"/> 주거환경 | <input type="radio"/> 가치관, 성격 차이 |
| <input type="radio"/> 자기계발 | <input type="radio"/> 가정 유지에 대한 부담감 |
| <input type="radio"/> 자녀계획 없음 | <input type="radio"/>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불신 |

기타(10자 이내)

